

대한민국은 ‘안전한 나라’인가

大韓言論 2015주제 ‘나라 바로 세우기’

세월호 침몰사건, 롯데 잠실빌딩 잡음, 도처의 싱크홀 발생, 무지막지한 살인, 불량식품, 미세먼지, 빈번한 아파트 화재 등 등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는 안전문제가 연일 터지면서 사람들이 잘먹고 잘사는 것도 문제이지만 빈부를 가릴 것 없이 안전문제가 하루도 머리에서 떠날 날이 없는 사회형편이 되었다. 도시화와 산업화가 급속히 이루어지면서, 한편으로 한국의 발전을 자랑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불안에 떨면서 사는 지경이 되었다. 전면적인 불안감이 정신세계를 압도하고 있다. 이를 더 이상 보고 갈 수는 없다는 것이 세상의 중론이다.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

유엔보고서 안전의식 6개 분야로 제시

“베수비오 산의 비탈에 도시를 만들어 위험하게 살아가!” 이것은 니체가 한 말이다. 그 산은 옛날 폼페이를 화산재로 덮어버린 산이다. 니체는 왜소해 진 인간들에 대한 비판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었다. 위험을 피하고 싶은 사람들이 반드시 왜소해서 그런지는 별개의 철학적 문제로 삼더라도, 서양의 18세기 이후 안전은 인간의 권리로 규정되어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실은 익히 모두가 아는 바이고, 또 근래 한국에서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안전문제가 매일처럼 짜증스럽게 거론되는 것도 더 이상 안전문제를 일과성 사건으로 볼 수 없는 상태를 말해주고 있다할 것이다.

안전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은 오랫동안 국가안전에 한정되어 논의 되어 오다가 근자에 들어와서 그 의식의 내용이 크게 확대되었다. 유엔의 인간개발보고서에 나타난 것을 보더라도, 경제안전, 식품안전, 건강안전, 환경안전, 개인안전 그리고 정치안전 등 여섯 가지를 들고 있어, 저간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이를 반영하듯 베크 교수의 <위험사회>란 저서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것도 세상의 큰 변화를 말해준다 할 것이다.

안전문제가 이렇게 문제시 되는 것은 학문적으로는 근대성 또는 산업사회와 연결되면서인데, 그렇게 문제를 규정하는 경우 역설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산업경제는 인간의 빈곤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과학이나 기술의 도움으로

역사상 유례없는 공헌을 해온 것은 누구도 부인 못할 사실이다. 그리고 좀 더 나은 물질적 생활에 대한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숨피터가 말하듯 끊임없는 창조적 파괴를 필요로 한다는 것도 이른 바 개혁의 이름으로 누구나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일이지만, 그 창조적 파괴란 것은 그에 따르는 고용불안 등 부수되는 여러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이다. ‘제조된 위험’이란 이런 사정을 두고 말하는 것이다. 건강과 환경이 가져다주는 위험은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다. 그렇다면, 발전은 멈추어야 할 것인가? 뱃을 위한 풍요인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은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은 쉬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물질적 풍요를 단념하지 않는 한, 위험을 함께 지니고 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남는 문제는 불가피한 위험을 어떻게 관리해 가느냐가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할 것이다. 천재지변과 같은 자연현

특별기고



노재봉

·전 국무총리

政治圈-市民

北核안전 不感症

세월호 충격 넘어서

個體주의시대

공덕심 배양교육으로

‘제조된 위험’ 관리해야

상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그것조차 관리하는 노력이 부단히 계속되고 있는 마당에, 인간에 의해 <제조된 위험들>에 대해서 그 관리의 중요성은 더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관리기능의 한 부분은 국가와 정부가 맡지 않을 수 없다. 이를 공공 서비스 기능이라 부른다면, 한국은 그동안 생산성 제고와 능률성 향상정책에 집중되어 공공 서비스 부문에 별로 관심을 쏟지 않고 온 결과로, 서비스 행정의 취약성이 매일처럼 드러나고 있다. 어떤 공약에도 공공 서비스 문제가 적시된 일이 없다. 이를 위한 공무원의 재교육이나 인력양성에도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온 것이 그간의 사정이다. 서비스라는 개념과는 약간 다르지만, 정치권이 국가적으로 가장 큰 위험인 북한의 핵위협이 주는 안전문제에 대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둔감하고 시민들도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 사실은 실로 놀라운 일이며 안전 불감증이 세월호 침몰 충격에 비할 바가 아니라 할 것이다.

시민의식 높아지지 않으면 한계

관리기능의 다른 한 부분은 시민들의 소임이다. 아무리 정부가 혼신의 노력을 한다면, 시민들의 자세가 담배공초 하나 제대로 관리 못하는 형편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기능별로 정부와 시민 영역을 구별해 봤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결국 둘 다 같은 사람이 개입 되는 일이라 생각하면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가 궁극적인 문제로 떠오른다.

한국에서도 지금 위험을 관리하고 안전을 도모해야하는 인간상은 점점 개체주의화 되어가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독한 평등주의가 팽배하여, <나>라는 주체의 주인은 <나>뿐이다. 그 <나>라는 존재는 어느 누구도 규정할 수 없는 것이고 나 이외의 어느 누구도 나의 세계에 개입할 수 없는 것이다. 나는 절대적으로 자유스럽고 평등한 존재이다. 여기

에는 자연이란 것의 한계도 들어올 수 없는 것이다. 보브와르의 말대로 여자는 자연적으로 여자로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여자로 만들어졌을 따름이다. 전통이나 관습이라는 최소한의 안전망도 이제는 나날이 사라지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한 인간들이 공공기관과 시민사회를 이루는 공통적인 존재라고 할 때, 안전을 생각한다는 것은 짜증일 따름이고 소극적인 불평을 통해서 위험에 대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현대사회의 위험에 관련하여 교육이 강조되는 이유를 우리는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할 것이다. 여차피 개체주의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면, 그 개체주의를 인정하는 바탕에서 공덕심(公德心)을 배양하는 교육으로 개혁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것을 떠난 웅변은 유토피아일 수밖에 없다. 안전문제의 관리는 사람이 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은 위험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는 없는 존재임을 인식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나만의 안전이 안전일 수 없고, 그 안전은 또한 이제 개체의 권리일 수도 없게 되었다. [K]

고바우 만평

김성환 (본회 회우)



갈수록 험난한 길

大韓言論 2015 주제
‘나라 바로 세우기’

‘제2의 세월호’ 막을길 요원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벌써 1년이 지나갔다. 세월호 참사가 남긴 교훈을 금세라도 실천할 것처럼 다양한 대책들이 나왔지만, 안전사회는 아직도 요원하다는 사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국회에서 논의조차 못한 대책도

정부의 부실한 안전 대책과 국민들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하다. 지난해 10월, 1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다친 판교 환풍구 붕괴 사고를 비롯하여, 올해 1월 총 5명이 숨지고 125명이 다친 의정부 화재 사고, 2월 2명이 숨지고 130여명이 부상당한 인천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 5명의 인명을 앗아간 강화도 캠핑장 화재 사고 등은 모두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무색하게 만든 대표적인 인재(人災)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만 최근 5년간 3천 건 이상 발생한 도심 ‘싱크홀(sink hole)’ 현상은 정확한 원인조차 규명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세월호 참사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여객선들에 관한 최근의 언론 보도들을 살펴보면, 선실에서는 술판이 벌어지고, 구명정으로의 접근은 차단되어 있으며, 선내 주차장 출입제한도 없는 등 각종 위험이 여전히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마련된 후속 대책들이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에 효과적일지도 의문이다. 우선, 안전 관련 대책에 대한 제도화가 미약하다.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일명 ‘유병언법’을 포함한 소위 ‘세월호 3법’과 해운법, 선원법, 선박안전법 등은 마련되었지만, 국회에서 논의조차 없는 대책도 많다.

대표적으로, 수난구조법 개정안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며, 운항금지의 대상이 되는 선령도 몇 년일지 미정인 상태다. 또한, 재난 대응 관리 체계의 효과성도 불분명하다. 일사불란한 재난 대응과 수습을 위한 컨트롤타워로 국민 안전처를 신설했지만, 이질적인 기능들이 어떻게 조화롭게 융합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조직 융합을 위한 전략도 보이지 않는다. 보다 복잡다기한 재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만들어진 국민안전처의 특수재난실장 자리도 여전히 채우지 못한 것으로 알고

안전사고

특별기고



이창원

·한성대학교수·행정학

다양한 대책 불구 곳곳서 人災 빈발

관리체계도 구명 ‘관피아’ 떠난자리 정치권 인사가 차지

국민 개개인 안전 의식이 관전

있다.

다른 부처와 정부기관도 세월호 참사의 후속 대책으로 마련된 안전 관련 규제를 철저히 이행할 만한 충분한 전문성, 인력, 자원을 아직 갖추지 못하고 있다.

후속 대책의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세월호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된 ‘관피아’ 문제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공직자윤리법을 강화했고, 결과적으로 퇴직공무원의 재취업과 낙하산 인사는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퇴직공무원이 떠난 자리를 정치권 출신들이 차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어느 언론보도에 따르면, 300개 공공기관의 기관장과 감사를 조사한 결과, 세월호 참사 당시 161명이던 관료 출신 인사가 118명으로 줄어든 반면, 정치권 출신 인사는 48명에서 53명으로 증가하였다. 이제 퇴직공무원 인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인 전문성마저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급조되거나 실행안되는 대책 재검토해야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위로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세월호 참사가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그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세월호 참사가 남긴 교훈을 제대로 학습하여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1년 동안 무수히 쏟아진 후속대책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후속대책의 타당성과 진정성마저 의심하게 만들고 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사회적 비난을 순간적으로 모면하기 위해 급조되었거나, 철저한 실행을 담보하지 않은 형식적일 뿐인 대책이 아니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철저한 대책 마련’이라는 정부의 결의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발생하는 대형사고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몫이기도 하다. 정부가 제시한 안전 대책의 실효성은 궁극적으로 국민 개개인의 안전 의식의 제고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국민의 안전의식은 안전사회의 기반이다.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간직한다는 것은 그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예의다.

‘100자 발언대’

천어무용(千語無用)

‘일언부중(一言不中)이면 천어무용(千語無用)’이라. 한 마디 말이 이치에 맞지 않으면 천 마디 말도 쓸 데 없다는 명심보감 언어편 첫 문장이다. 오호동재라 말 많은 정치권, 국민 우롱하는 말장난 궤변무대 언제까지 펼치려는가?

새로운 삼강(三綱)

가정의 달에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정치는 정도를, 공복(公僕)은 정직을, 법률은 공정’을 새로운 삼강(三綱)으로 설정해야만 부패 없는 나라 국가만사성(國家萬事成)을 이루려나?

유한준(편집위원)

“돈 받은 증거 나오면 목숨 내놓겠다”
망자(亡者)가 살아 돌아올 리 없다

는 걸 믿는 건가?

한 가지 거짓말을 위해선 열 가지 새 거짓말이 더 필요하고, 열 가지를 덮으려다간 자신이 무슨 말을 했지도 기억 안나서 결국엔 자승자박(自繩自縛)의 길로 간다는 걸 왜 모르시나.

독자 여러분, ‘성완중 게이트’ 종결편을 걸기대.

지용우(논설교문)

싫지고 불구덩이에

죽은 성완중이 산 정치인들을 혼비백산케...

살아있어 서로 네 탓이라 목청 돋우는 자들, 싫지고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꼴.

미꾸라지 한마리가 온통 흙탕물로—
그런 미꾸라지가 어디 한 마리뿐일까?

권영국(기획조정위 간사)

태극기 불태운 데모

세월호 1주기 추모식과 기념행사가 폭력시위로 돌변해 경찰은 경복궁 앞에 차벽을 쌓고, 시위대는 과격 시위. 유가족들은 국외순방 당일 아침 팽목항을 찾은 대통령까지 외면. 또 데모현장에서는 시위대가 태극기를 불태우는 등의 행위가 벌어지는가하면 심지어는 박 대통령을 향해 “남미 순방 안녕히 가세요. 돌아오지 않으셔도 됩니다.”라는 전단 살포까지.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종북세력과 일부정치인 그리고 이를 선동하는 종북언론들이 여론을 왜곡하고 민심을 이반시키고 있는데 대해 보고만 있어야 될 것인가?

이보길(회원사업위원장)

군사·정보·치안역량 모두불안

大韓言論 2015 주제
‘나라 바로 세우기’

국가안전(National Security)이란 “국가가 직면하는 다양한 위협들을 이상 없이 잘 극복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국가가 직면하는 다양한 위협들의 예는 무수히 많다. 큰 지역 혹은 전국적 범위에서 수돗물 공급이 갑자기 단수되는 경우, 국민들이 사용하는 수많은 개인 핸드폰들이 갑자기 불통이 되는 경우, 서울상공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공격이 이어지고 서울이 아수라장이 되는 경우, 사이버테러가 전국적 범위에서 자행되고 전산시스템과 통신시스템이 갑자기 마비되는 경우, 갑자기 정전사태가 발생하여 전기 공급이 중단되는 경우, 전국적으로 예금인출이 되지 않는 경우, 방공시스템이 불능화 되는 경우,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되고 주변이 심하게 오염되는 경우, 어느 지역에 민란이 발생하고 이적세력들이 동조하는 경우, 중요 고속도로가 마비되는 경우, 공항시스템이 마비되는 경우, 병원시설들이 마비되는 경우 등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마비시키거나 위협, 공포 혹은 걱정스러움을 안겨주는 모든 것들이 다 다양한 위협들이다.

국가안전역량은 “국가가 직면하는 다양한 위협들을 극복할 수 있는 종합적인 국가능력”이다. 본 종합적인 국가능력에 대해 미국의 전문가 조셉 제이 롬(Joseph J. Romm)은 그의 저서《Defining National Security: the nonmilitary aspects, 1993》에서 군사역량, 정보역량, 치안역량, 정치역량, 경제역량, 사이버역량, 국민안전의식 및 행동 등으로 세분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안전역량 각각에 대해 그 핵심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그 역량을 보완하는 핵심적인 대안들을 간결하게 제시코자 한다.

군사역량

우리의 군사역량은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국가적인 재앙을 당하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노정되었다. 국가안전차원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국가재앙을 사전 차단하는 소위 차단역량(Deterrence Power)의 미흡함이다. 국가적인 재앙은 그것이 재앙으로 현실화하기 전에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차단역량이 가장 중요한데 현재 한국의 군사역량은 이러한 차단역량이 많은 미흡함을 내포하고 있다. 차단역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앙과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수집·분석하는 정보기관, 첨단장비, 인간정보 등이다. 이들 모두가 상당한 문제점들을 갖고 있다. 특히, 첨단장비 구비는 차단역량확보에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근래 노정되고 있는 방산비리는 화급한 차단력 확보에 큰 구멍을 내고 있는 군사역량 훼손행위다. 이들 비리에 연루된 국민들은 일벌백계의 정신적인 혁신이 절대 필요하다.

정보역량

국내외적으로 내재하고 있는 위협 혹은 다가오고 있는 위협 등을 간파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정보역량이다. 한국정보역량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정치인들이 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무관심 혹은 왜곡된 인식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상당수 정치인들은 국가이익차원에서 정보기관의 임무와 기능을 인식하지 않고 오직 당파적인 이익차원에서 인식한다.

정보기관의 개혁이라는 명분하에 국가정보기관을 불구화시켜 절체절명의 중요한 임무와 기능들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도록 해놓았다. 국가정보기관의 임

국가안전

특별기고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장
·국제정치학 박사

防産비리 등으로 재앙차단 능력 손상

정치당파적 잣대로 정보기관 기능 퇴화

이적세력 불법투쟁 법집행 제대로 안돼

무와 기능수행 미흡은 국가안전 임무 수행 불능으로 바로 직결된다. 우리 정보기관들이 국가안전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 분석, 공급할 수 있도록 국가정보기관 고유의 임무와 기능을 회복시켜야만 한다.

치안역량

치안역량은 주로 경찰중심의 역량이다. 국내질서를 유지하고 범법행위들을 철저히 다스리는 역량이다. 우리 치안역량의 큰 문제점은 법치주의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사회의 비이성적 투쟁세력들과 이적세력들은 공공연하게 비합법, 반합법 투쟁을 일삼으며 우리의 치안력은 권위를 상실한 채 범법행위들에 대해 철저한 법집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전통이 되어 있다. 우리의 치안력이 국가안전역량으로 제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법치주의 원칙하에 철저한 업무수행이라는 치안력 본연의 자세를 조속히 회복해야만 한다.

정치역량

정치란 국가의 종합적 경영이다. 우리의 정치문화는 국가안전에 역행하는 요소들을 너무나 많이 보유하고 있다. 정치인들 가운데 비이성적 폭력에 앞장서는 사람들, 이적세력들에 동조 혹은 연계된 사람들, 순수한 국가안전관련 이슈들을 정치화시켜 정치적인 목적달성에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 국가안보 혹은 안전관련 국가예산 삭감에 앞장서는 정치인들, 우리의 안보역량을 노골적으로 훼손시키는 정치인들 등 국가안전역량을 훼손시키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다. 국가안전이라는 차원에서 한국의 정치문화가 개선되어야만 한다.

경제역량

경제역량은 다른 국가안전역량 강화에 필수요소다. 경제역량 지원 없이 어떤 다른 안전역량도 강화될 수 없다. 국가안전은 국가의 모든 다른 역량들을 강화시키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프라다. 국가안전 없이는 경제발전도 국가복지도 모두 사상누각(沙上樓閣)이다. 최상의 복지는 국가안전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현실은 국가안전역량 증대보다는 상당히 정치화된 복지 분야에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국가예산을 소모하고 있는 현실이다. 국가안전 분야에 투입되는 예산을 소모적인 예산이라는 잘못된 인식의 교정과 실질적인 국가안전역량 증강을 위한 경제역량 확보가 대단히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사이버 역량

디지털 플랫폼은 현재 우리 인간들과 떨어질 수 없는 필수적인 삶의 공간이다. 본 사이버 공간이 안전하게 수호되는 것이 오늘날 모든 국가들의 가장 중요한 국가경영 혹은 국가안보 임무 중 하나다. 사이버 공간에 적대국의 소프트 에너지(Soft Enemy) 침투는 사실상 적군에 의한 영토침범과 꼭 같은 의미다. 지금 우리를 둘러싼 북한과 중국은 막강한 소프트 에너지를 양성해 놓고 수시로 우리를 침범하는 적대국들이다. 이들에 대한 완벽한 대응력을 양성해야만 한다.

국민 안전의식 및 실천적 행동

현재 우리국민들은 국가안전차원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포지하고 있다. 국가안전 파괴세력으로서 비이성적 투쟁세력 및 이적세력들이 국민 속에 존속하고 있으면서 사회 안전보다는 사회불안을 위해 선전선동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의식 및 실천적인 행동으로 이들 국가안전파괴세력들을 축소 혹은 세척해야만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이적성 가치들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알아야만 하고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적인 가치들로서 이들 이적성 가치들을 세척해야만 한다. 우선 확고한 애국성 의식을 구비하고 다음으로 실천적인 행동으로 실행을 해야만 한다.

결론적으로 국가의 안전역량은 모든 국가역량을 성장 증대시키는 인프라라고 볼 수 있다. 국가안전역량의 강화를 위해 우리는 군사력에서 차단역량 강화, 일부 불구화되어 있는 정보역량 회복 및 강화, 법치주의에 입각한 치안역량 발휘, 국가안전과제들의 탈정치화, 국가안전역량에 보다 많은 경제역량 투입, 우리의 사이버 공간에 소프트 에너지 차단 및 박멸을 위한 능력배양, 국민의 대한민국의 애국성(愛國性)을 바탕으로 이적세력 및 비이성적 투쟁세력 세척능력 강화 등이 우리가 국가안전과 관련해 조치해야만 할 역무들이다. [국문]

대한언론인회 봄철문화탐방 5월 20일 강릉으로 갑니다

대한언론인회의 봄철 문화탐방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참가신청은 5월 14일(목요일) 하루만 받습니다. (선착순 100명)

- 일 시 : 2015년 5월 20일 오전 7시 30분 프레스센터 정문 출발
- 탐방코스 : 서울 출발 - 강릉 경포대 - 오죽헌, 소리박물관, 허난설헌 기념관 - 신사임당 생가 등 - 귀경(위 일정은 현지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 5월 건강포럼은 이 문화탐방으로 대체합니다.

大韓言論 2015 주제
‘나라 바로 세우기’

산사태·싱크홀 원인 덮기 급급

2011년 7월 서울 우면산 산사태로 16명 희생, 작년 여름 경기도 성남 환풍구추락으로 16명 희생, 작년 여름 서울 송파지역을 시작으로 현재 전역으로 번져 공포심을 유발시키는 싱크홀 사고, 작년 4월의 세월호 침몰 304명 희생 등 각종 재난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수십 년간의 언론자료들을 살펴보면 유사한 사고들이 끊임없이 발생했고 대책도 이미 제시되었지만, 지난 수십 년간 개발에만 집중하며, 사고가 나면 근본원인을 따져 반성하지 않고 하나의 사건으로 간주하고 매번 덮고 넘어간 결과이다. 즉, 교훈을 모르는 우리 사회가 키운 괴물들이다.

우면산 산사태 가능성 97년 이미 지적

재난을 다루는 정부대응방법을 소개하기 위하여 근래에 사회적 큰 관심사인 우면산 산사태와 싱크홀 사례를 살펴본다. 산사태와 싱크홀은 땅이 움직이는 현상이므로 지질학과 토목공학을 모두 이해해야 한다. 필자는 이미 97년에 ‘서울의 산사태위험연구’ 논문에서 우면산 산사태 가능성을 지적했고, 98년에 ‘서울 땅속지도’를 만들어서 서울 침하(싱크홀)를 도시계획차원에서 사전에 대비하도록 지적했는데, 이런 내용이 당시 언론에도 수 차례 보도되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관심을 두지 않다가 피해를 키웠고, 사고 이후엔 책임질까 두려워서 이런 경고들이 사전에 있었다는 사실조차 언급하지 않고 있다.

산사태는 산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려오는 특성이 있다. 그런데 산 상부는 산림청, 산 중턱의 도로는 국토교통부, 산 하부의 지 자체는 안전행정부로 나뉘어서 영역별로 관리된다. 지자체 내에서 또 따로 관리되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재난은 여러 부처를 통합하여 관리하지 않고는 사전 예방을 할 수가 없다. 산지의 고속도로와 심지어 KTX 마저도 위쪽의 산지에서 산사태가 나서 토석류가 하부 고속도로와 KTX를 덮치는 피해를 고려해 설계를 한 게 아니므로 폭우 시 산사태피해를 받을 곳이 도처에 있다. 전국 100만 곳, 서울 10만 곳으로 추정되는데 실태파악조차도 안 되어 있다. 그런데도 정부에서는 산사태 위험지역이 전국에 약 2만 곳, 서울은 300곳을 예측하고 있는데 실제 산사태는 엉뚱한 곳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실태 파악도 제대로 안 했는데 마치 준비를 다한 것처럼 홍보를 하기 때문이다. 이런 ‘불편한 진실’을 정부에서는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알리지 않고 있다.

싱크홀은 대도시를 개발하면서 후유증을 고려하지 않은 난개발의 결과이고, 특히 서울시는 98년에 필자가 만든 땅속지도를 사전 인허가 단계인 도시계획차원에서 활용하지 않는 직무유기적인 측면이 있는데 이런 내용에 대한 반성은 없다. 그리고 대도시에서의 싱크홀은 대부분 인근에서 벌어진 부실공사와 관련이 있으므로 관리감독하는

사회안전

특별기고



이수곤

·서울시립대 교수
·토목지질공학 박사

‘땅속지도’ 외면

실태파악 안돼

우면산 산사태 등 초래

현장 전문가등

실무자 토론 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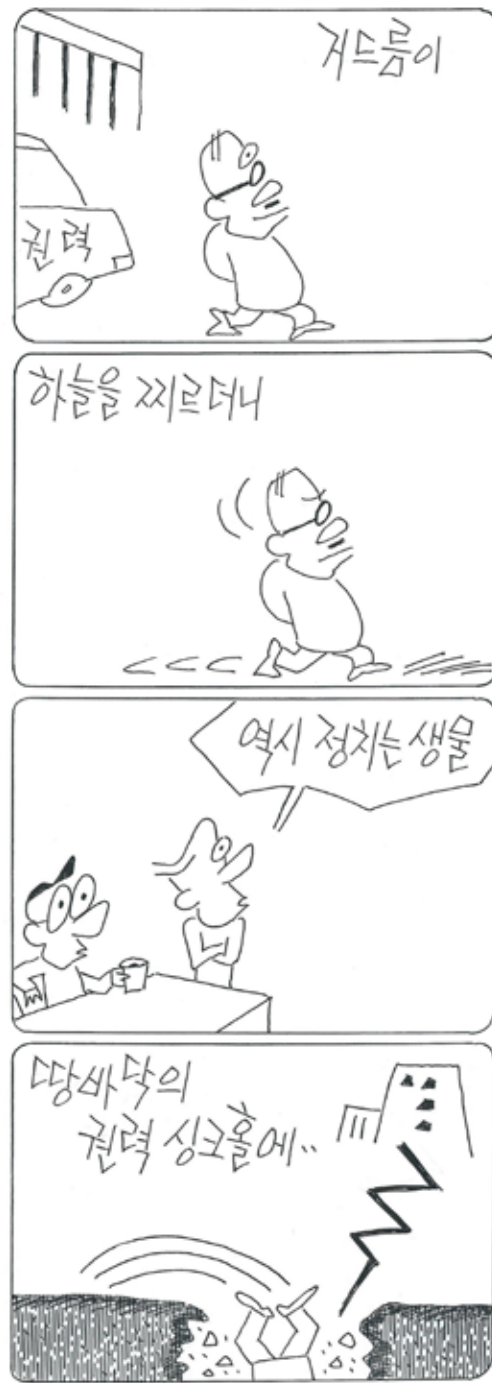
숨어 있는 문제 찾아야

공무원과 시공사가 함께 책임이 있는데 약자인 시공사 탓으로만 돌려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서 싱크홀도 무너지자마자 정확한 원인파악 전에 우선 덮어버리고, 대부분 노후관로 탓으로 돌리면서 막대한 교체예산이 필요하다고 한다. 사실 땅속의 자료(지질, 상하수도관, 지하수개발 상황, 건물기초형식 등)들에 대한 종합자료가 축적되지 않았으니 현재로서는 어디가 위험한지를 모르는 것이 ‘불편한 진실’이다. 그런데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면서 마치 정부에서 단시간 내에 싱크홀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홍보하는걸 보면 다시 또 우면산 산사태와 비슷한 과정을 겪을까봐 우려된다.

작년 4월 세월호 사건 후에 관련부처들이 있는데도 효율적이지 못하며, 특정업체가 구조하도록 기다리는 등 허둥대는 정부조치를 보면서 제2의 우면산 산사태와 똑같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세월호 사건 직후인 작년 4월말에 국회의 재난공청회에서 원자력, 화재, 범죄, 산사태 등에 대한 국내사례발표가 있었는데 필자가 우면산 산사태의 왜곡된 원인조사 사례를 발표하니까, 다른 분야 발표자가 “어떻게 분야는 다른데 관피아가 똑같느냐”라고 필자에게 놀란

오늘의 니대르

이 홍 우(본보 편집위원)



힘을 모아서 사회 각 분야가 기존의 나태한 관행을 깨고 선진화되는 계기가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누구보다도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 대통령은 솔직히 재난실태를 설명해서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국회와 언론도 호응해서 제2의 새마을 국민운동 같은 사회개조운동을 이끌어야 한다. 그러나 세월호 사건도 이미 1년이 지나가서 일반사람들에게는 피로감이 생기기 시작했고, 더구나 그 동안 여러 가지 국내의 사회적 정치적인 사건들로 인하여 서서히 묻혀져 가고 있다. 개혁에도 다 시기가 있는데 초기의 귀중한 기회를 놓치고 자주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방법론도 중요한데, 아래와 같은 네 가지 사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각 재난의 문제점 및 적폐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하여 지금까지의 관료적인 사고방식이 아닌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교수나 박사들이 아닌 학식이 쏘더라도 실무를 잘 아는 현장전문가들로 구성해서 각 분야마다 국민대토론회를 열어 숨어있는 현장의 생생한 문제점과 적폐인 ‘불편한 진실’도 이젠 과감히 노출시키도록 해야 한다.

둘째: 많은 재난들이 여러 관련부처가 서로 얹혀져 있는 경우가 많으니 현재와 같이 국민안전처가 장관급이어서 업무통합이 어려우므로 최소한 부총리급이나 총리급이 직접 맡아야 한다.

셋째: 평소엔 크게 관심없다가 재난이 중요한 사회적 관심

사가 되니까 재난관련 연구비와 사업비 예산이 크게 증액되고 있다. 그러니 그동안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갑자기 전문가와 전문업자라고 나서고 있다. 실제로 국내 재난문제를 해결할 실용성이 있는 연구가 아니고, 외국에서 이미 개발된 기술을 처음부터 모방하는 식의 연구를 위한 연구, 책정된 예산을 쓰기 위한 공사를 할 우려도 크다. 현재 돈이 부족한 것이 핵심문제가 아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부 공무원과 학자들의 카르텔이 현존하는 국내현실에서 재난예산만 갑자기 늘려주는 건 잘못된 해결책이다. 세계최고전문가들로 국제자문단을 구성해서 사전에 연구과제들의 정당성을 평가하도록 하는 견제장치가 필요하다.

범국민 사회개조운동 필요

이와 같이 재난들이 여러 종류로 형태를 달리하지만 근본원인은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서 고착화된 안전불감증이며, 사고로부터 반성하지 않은 우리사회의 응보이다. 그러므로 어느 특정한 정권만의 책임이 아니라 지난 50년간 경제개발이 우선이고 안전은 소홀히 한 정책적 산물이다. 물론 세월호 개별사건의 원인은 제대로 밝혀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정쟁을 멈추고 온 나라의

넷째: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개혁적인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상벌을 확실히는 제도를 갖춰야 한다. [국문]

‘감동하는 가슴’ 되찾아야 한다

大韓言論 2015 주제
‘나라 바로 세우기’

사람 사는 세상엔 평화로운 면도 많이 있지만 언제 붕괴될지 모르는 위험한 벼랑도 도처에 있다. 어느 시대건 문제는 있어왔다. 그러나 근래에는 생명을 위협하고 가정생활까지 위협하는 크고 작은 사건과 변화의 물결이 파도쳐서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외부의 충격에 의한 가정파괴 사라져야

가정은 안전한가? 가정의 안전문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추구해야 할 것이다. 하나는 사회의 안전장치 부재로 불시에 강타 당하는데서 오는 가정파괴가 없어야 하고, 또 하나는 급격한 사회변천에 현명하게 적응하지 못하거나 잘못 인식한데서 야기되는 가족해체의 불행을 막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니게 여겨지는건 날마다 범람하는 뉴스가 방송, 신문, 스마트폰 등 다양한 전달매체를 통해서 우리 생활에까지 마구 침범해오는 탓일 수도 있을 것이다. 때문에 이제 웬만한 사건엔 별로 놀라지도 않거나 으레 있을 수 있는 일로 치부하는 등 안전불감증이 타성화될 수도 있다. 그건 매우 불행한 사태이다.

우리는 정상적인 사회에서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원한다. 인간답게 영위되는 행복한 삶을 원한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남에게서 위협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하고 우리 가정의 훈훈한 분위기가 손상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안전장치 부재로 일어난 대표적인 사례가 세월호사건이다. 사건 1주기를 맞아 세계 여러 매스컴이 특별취재를 했다. 그 중에서도 로이터통신이 세월호로 숨진 학생들의 집을 일일이 찾아가 지금은 주인 없는 학생의 빈 방을 촬영 보도했다는 기사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가족들은 학생의 방을 치우지않고 보존하고 있었다. 당장이라도 책가방 메고 학교로 나설것 같은 환각에 사로잡혀 가슴에 구멍이 뚫린 채 참담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가정의 비극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이 끔찍한 사태는 기업의 탐욕과 부실한 감독, 사건당시의 부실한 대처등이 빚었던 비극이었고 희생자뿐 아니라 그들의 가정을 비극의 나락으로 던져버린 것이었다. 사회의 안전장치 부재는 곧 모든 가정을 위협하는 요소인 것이어서 국가 사회가 철저히 책임방어를 해야 하는 것이다.

가정은 어떠한가? 한국은 가족사회라 할만큼 함께 어우러져 사는 문화였다. 이제 핵가족사회로 변화되어가면서 제도와 관습도 많이 변하고 유기적인 인간관계의 아름다움도 약화되어 개인주의로 치달아가고 있다. 나는 오늘의 가정양태가 삭막해져가는 근본 요인으로 극단적인 개인주의와 함께 〈감동하는 가슴〉을 잃고 사는데 있다고 본다.

언제부터인지 가족이 또는 친지나 이웃끼리 서로를 미소로 대하고 작은 일에 감사하고 동정하고 잘못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과할 줄도 아는 인간도리를 소홀히 하는 풍조가 되었다. 남의 우호적인 간섭도 신경질적으로 배격하는 지나친 피해의식, 나도 남에게 무관심한 것이 자기보호라고 여기는 세대를 어떻게 받아들이야 할까. 사회가 무섭고 사람이 무섭기 때문이라는 변명만 내세우기

가정안전



김후란

·본회 자문역·시인
·문학의집 서울 이사장

극단적 개인주의로

人間도리 소홀

가정해체 풍조까지

젊은이 三抛세대

나라미래 어둡게 해

자녀에 과잉기대 말길

전에 사람과 사람사이의 벽을 허물고 인간적인 교류를 가질 일이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선 삼포세대(三抛世代)라는 표현을 공공연히 쓴다고 한다. 취업, 결혼, 출산의 세가지를 포기하고 산다는 뜻이라 했다. 이렇듯 절망적인 생각을 한다면 그들의 인생은 무엇이 되며 이 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될것인가. 이대로 가다가는 언젠가는 우리나라 인구증가율이 제로로 떨어진다는 미래학자들의 기우를 설마하고 넘길 일이 아닌 것 같다.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갖고 창 의와 창조 의 삶을 살자고 말로만 격려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방치할 일은 더구나 아니다. 사회지도층 기성세대의 모범과 책임감있는 계도가 선행되고 가정에선 부모의 따뜻한 인도가 따라야 할 것이다.

가족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어떻게,라는 정답은 한마디로 나올 수 있는게 아니지만 먼저 〈감동하는 가슴을 되찾자〉고 말하고 싶다. 가정의 존엄성을 지키고 가족의 아름다운 융화와 가족이라는 끈끈한 핏줄을 소중히 여기는 길을 따뜻한 말로, 표정으로, 분위기로, 이끌어가야 한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감동할 줄 아는 심성은 모든 일을 선의로 포용하게 하는 힘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가정해체 풍조가 슬그머니 번져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나쁜 병균은 더 빨리 번진다. 요즘 흔한 말로 이혼이 무슨 흥이냐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자녀에게 미치는 파장과 가족해체의 불운을 깊이 생각해볼 일이다.

가정해체의 가장 큰 요인은 세대간의 몰이해에서 오는 갈등과 부부간의 양보하지않는 대립의식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갈등을 심정적으로 해소하지 못하는데서 돌이킬 수 없는 가정파괴의 원인이 된다. 함께 사는 가족일수록 각자 자신의 가치추구도 중요하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행복한 삶을 지탱해주는 영양소라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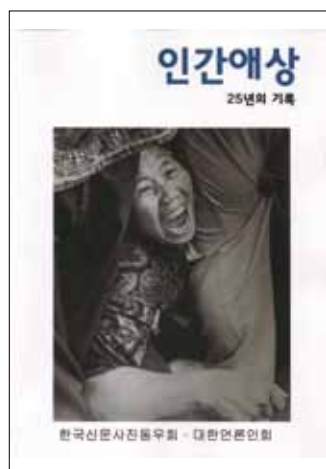
자녀에 대한 지나친 집착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가정분위기가 우울해지는 요인중의 하나가 자녀에의 기대치가 너무 높아 끝없이 강요하고 독려하는데서 기인한다고 할 때 자녀를 인격적으로 건강하게 키우려는 현명함이 따라야 할 것이다.

레바논의 작가 겸 화가였던 칼릴 지블란의 다음과같은 말을 곱씹어보자. 〈아이들은 그대들을 거쳐왔을뿐 그대들의 소유는 아닌 것을〉 〈그대들은 아이들에게 사랑을 줄 수는 있으나 그대들의 생각까지 줄 순 없다. 왜? 아이들은 아이들 자신의 생각을 가졌으므로〉

가정은 영혼의 안식처이다. 그러나 외부의 충격으로나 내부의 분열로나 자칫 상처가 나고 그 상처가 쉽게 낫지않으면 찢겨진 삶의 슬픈 웅덩이가 되어버린다. 가정은 꽃밭처럼 정성껏 가꾸어 빛깔과 향기가 주변까지 번지게 함으로써 자신도 가족도 행복하게 만드는 곳이다. 안전진단을 의식적으로 하자. 작은 일에도 감동하고 감사하면서 서로의 얼굴을 사랑으로 지긋이 바라볼 때 인생이 아름답게 느껴질 것이다. [필자]

25회 신문사진 인간애상 시상

역대 수상작품 담은 사진첩도 편찬



대한언론인회는 신문의 날인 지난 4월 7일 오후 2시 30분 프레스센터 19층 국화홀에서 ‘2015년도(제25회)신문사진 인간애상’을 시상했다.(수상작 ‘대한언론’ 4월호 참조) 이날 시상식에는 본회 김은구 회장과 박용운 신문사진 동우회 회장을 비롯해 제재형 고문, 홍원기 명예회장 등 간부 임원진 다수가 참석해 수상자들을 축하 격려했다.

한편 신문사진 인간애상 실무를 맡아 수고했던 석동률 동아일보 부국장은 이날 특별히 편찬한 인간애상 사진첩(지난 25년의 ‘인간애상’ 기록을 수상작 사진과 함께 엮은 책·사진)을 박용운 회장에게 증정해 이 상의 뜻을 더욱 깊게 했다.



수상자들과 함께 기념촬영.

韓-日 갈등 相生の 길은 없는가

지난 4월 16일 워싱턴에서 한미일 3국의 외교차관협의회가 개최됐다. 4월 말에는 5년 4개월만에 한일 국장급 안보협의회의가 열렸다.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최악의 상태라고 평가되고 있는 한일관계에 물꼬가 트일지 우려와 기대가 교차된다. 고이즈미 총리시절부터 시작된 일본의 역사수정주의와 독도문제로 인해 한일관계는 양국 국민의 감정싸움으로까지 변질됐다. 여기에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불발로 끝나면서 한때 ‘사실상 동맹’(virtual alliance)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긴밀했던 한미일 3국간 안보협력의 연결고리 하나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 한일관계의 악화로 인한 한미일 안보협력의 불협화음은 우리의 안보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요인이다.

美보다 中 중시는 모두 잃는 短見

일각에서는 중국의 부상과 한중 경제관계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미국과의 관계보다도 중국과의 관계를 더 중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는 안보를 희생해서라도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게 좋다는 위험한 발상이다. 안보를 잃으면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잃는다는 것을 모르는 단견이다.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는 매우 위태롭다. 미중간의 패권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중일간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은 일촉즉발의 위험한

상황이다. 올초 미국의 연구기관들은 북한이 이미 핵무기 소형화와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2020년 경에는 100여기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미일 3국간 긴밀한 안보협력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별기고



구본학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부총장

반도에서의 작전수행을 위한 일본 내의 자위대 기지 사용, ‘물품역무협정’(ACSA)에 의한 일본의 군수지원 및 정보교류 등은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이 효과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원활한 역할을 수행한다. 동해상에서 우리 해군의 해상 및 수중 작전수행에 있어서도 일본

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1965년 한일 수교 이후 한일관계에는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 양국은 아시아의 몇 안되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국가이면서 동시에 미국과 동맹관계를 맺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의 지리적 위치와 대북관계를 고려할 때 일본이 우리를 지원할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상호 협력하는 것은 우리의 국익에 매우 중요하다.

국민정서 있지만 안보협력 필수

역사문제로 독도문제로 인하여 한일관계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국민 정서상 터부시 되고 있는 이슈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미중 패권경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고 있는 한 한일 정책공조와 한미일 안보협력은 필수적이다.

과거의 역사에 신경쓰느라 갈등과 반목을 거듭할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점진적인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여 통일기반을 조성하는데 있어서도 일본은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일본의 침략전쟁 부인과 중일 영토분쟁에도 불구하고 반동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이 아베 총리의 손을 잡은 것은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시사한다. 급변하는 국제정세의 냉엄한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한일간의 긴밀한 협력으로 한·미·일 3국간의 ‘사실상 동맹’ 관계를 복원해야 한다. [7]

한·미·일 3각 체제 균열되면 우리안보 위협 北변화에 日역할 중요... 미래 향한 접근필요

작년 12월 한미일 3국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정보공유약정’을 체결했다. 우리 국민의 대일 감정을 고려하여 한미일 삼각동맹의 논란을 피하면서 미국을 매개로 한 3국 안보협력의 길을 트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후속조치로 지난 4월 16일부터 17일까지 워싱턴에서 한미일 안보회의(DTT)가 개최된 바도 있다.

일본은 한반도 유사시 한반도에 투입되는 미군의 후방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주일미군 기지를 통한 군수물자의 지원은 물론이며, 한

해상자위대의 직간접 지원은 역시 중요하다.

또한 북한 급변사태시 탈북난민 구호와 북한지역에서의 안정화작전 수행에 있어서도 주일미군 및 일본 자위대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일본은 난민의 수색 및 구난활동을 전개하거나 난민들에게 편이(accommodation)를 제공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대량의 해상탈북자들을 수용하고 식량과 의약품 등 긴급 구호물자의 지원에도 일본의 역할이 필요하며, 한미연합군의 원활한 작전 수행을 위해서도 일본

경편회 안면도 야유회

경향신문 편집부 출신 모임인 ‘경편회’는 지난



4월 8일 충남 서산 안면도 해변에서 맹태균 최귀조 원종선 양성목 이규섭 박진환 김택근 등 본회 회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봄철 문화탐방행사를 가졌다.

자선 바자회 성황리 개최

지난 4월 24일 동아일보 충청로사옥 2층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동우들이 기탁한 물품을 전시한 자선바자회를 열어 300여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이날 거둔 수입은 동우회 비품구입 등에 사용된다. 동우회는 이 바자회를 동우회보를 통한 지상바자회와 함께 상설 운영하기로 했다.

사우회보 29호 발행

서울신문 지난 3월 31일자로 사우회보 29호(타블로이드 컬러판 8면)를 발행했다. 김소선 사우가 제3대회장으로 선출된 소식을 1면 머리기사로 하여 나온 이번회보는 5월

사우회 소식

17일 과천 서울대공원에서 봄철걷기대회를 개최한다는 행사 예고기사와 김소선 회장 취임사(2면), 정기총회 이모저모(3면), ‘매월 셋째일요일은 산악회와 함께’, 사우회 초대석(장수근 사우 편·5면), 김은구 본회 회장의 29차 정기총회 개최 소식(7면), 사우동정 등이 실렸다.

매년 본사 초청 한마음 송년회

중앙매스컴 매년 본사가 주최 및 주관하고 사우들을 초청하는 형식으로 한마음 송년회를 갖기로 했다. 중앙매스컴 회보 198호 1면 머리기사로 소개된 이 계획은 3월 5일 사우회 운영위원 오찬 간담회에서 홍석현 회장이 밝힌 것이다. 회보엔 또한 동지회, 라디오기술부 문우사랑, 정우회, 동부회, 중앙그린회, 중대동, 두월회, 중출회, 중산회OB, 큐사랑, 말목회 등 다양한 친목 모임 소식이 사진과 함께 실렸다.

새만금 방조제 탐방행사 갖는다

한국경제 2015년 상반기 문화역사 탐방 행사를 오는 5

월 22일 군산 새만금 방조제에서 갖는다. 희망자(선착순 35명)는 5월 18일까지 한경사우회 사무국(전화 02-390-1007)으로 연락하면 된다.

산악회 봄철 등반

헤럴드 지난 4월 25일 청계산에서 4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봄철 산행 모임을 가졌다.(사진) 하산 후 오찬 자리에서는 헤럴드 사우회(코리아 헤럴드와 헤럴드경제 출신으로 구성)의 활성화를 위한 ‘묘안’이 백출하는 등 식탁점거 시간이 길어져 식당의 ‘눈총’을 받기도 했다. 한편 지난 4월 17일에는 작년에 이어 역대 사장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사우회 고문으로 추대된 5명의 전임 사장들이 참석했다.



사우회보 156호 발행

KBS 4월 1일자로 회보 156호를 발행했다. 타블로

이드 8면 컬러판(16면)으로 나온 이번호는 전봉찬 회장 체제 첫 이사회 소식을 1면 머리기사로 하여 14대 사우회 이사진 구성소식(4면), 조원석 회우의 ‘그때 그 이야기’ (5면), 이철영 회우의 ‘KBS 시청자위원회 중계식’ (8면) 등 다양한 읽을거리가 실렸다.

사우회보 26호 발행

CBS 지난 4월 10일 사우회보 26호를 발행, 마권수

사우회 회장 체제의 새 집행부 구성 등 사우회 새 출범 소식과 출범을 축하한다는 이재천 사장의 축하메시지를 머리기사로 실었다. 김영길 회우의 ‘아나운서 시절 그때를 추억하며’, ‘새벽은 더디 올 것 같아도’ (3면)등도 눈길을 끈다.

사우회보 34호 발행

SBS 4월 1일자로 사우회보 34호를 발행했다. 타블로

이드 8면으로 나온 이번호는 1면에 성황이룬 금년도 정기총회 소식과 방송3사 사우회 춘계바둑대회 준비 사항, 5월 11일 봄나들이 예고기사 등이 눈길을 끈다.

세월호 빌미 폭력시위 엄히 다스려야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는 봄철만 되면 겨울철에 잠잠하던 시위가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해 세상을 어수선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연례행사처럼 됐다.

시위는 날이 갈수록 규모가 커지고 서울 한 복판까지 진출하면서 정치세력 친북세력 사회단체들이 끼어들고 불순분자들이 조직적으로 선동하고 불을 붙이면 반정부적 폭력적으로 변질돼 가는 것이 공식이 돼 버렸다.

서울시청 앞과 광화문 일대는 주말마다, 어떤 때는 몇 달 씩 도심기능이 마비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국가사회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다. 그래도 내놓고 문제점과 그 폐해(弊害)를 지적하는 정치인도 언론도 원로도 없다. 모두가 비겁하고 나약하기 짝이 없는 한국인이다.

한동안 뜸하던 도심의 불법 폭력 집회가 세월호 참사 1주기를 계기로 다시 고개를 들더니 날이 갈수록 심해져 4월의 주말에는 광화문 일대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태극기를 밟고 다니는 자와 태극기를 불태워버린 자도 있었다. '박근혜 정권 끝장내자' '과도정부 구성하자'라는 반정부 친북적인 플래카드도 내걸렸다.

심지어 해외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비행기나 터져버려라”는 등 마이크에 대고 저주와 악담을 퍼붓기도 했다.

경찰버스를 부수고 차 안으로 들어가 소화기를 꺼내가는 사람, 경찰 보호장구를 빼내가는 사람, 밧줄로 경찰 버스를 묶어 흔드는 사람, 경찰차에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



이석희

·본회 논설위원
·전 KBS 보도국장

태극기 불태우고 대통령에 악담·저주 ‘공정보도’ 허울-설익은 인권잣대 그만

게 하는 욕설과 그림을 그리는 사람... 등 광화문 일대는 공권력이 작동할 수 없는 폭동에 가까운 무정부 상태였다. 이처럼 심각한 사태를 어떻게 볼 것

인가? 이런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할 것인가?

저들이 저지르고 있는 반정부적이고 체제 전복적인 폭동의 끝은 어디인가?

저들을 어디까지 관용할 것이며, 공권력은 언제까지 저들에게 얻어터지고 만 있을 것인가? 한심하고 답답하다.

정치인들에게 묻는다. 저런 비국민적인 작태, 저들의

의 의미와 범법성을 유린하는 ‘폭력’도 구별하지 못하면서 취재를 하는가? 기사를 다루는데 있어서 어디에 무게 중심을 두고 어떤 기준 아래 시시비비(是非非非)를 가려야 하는 지도 모르면서 언론에 종사하고 있는가?

나라야 망하든 말든 자기 잇속만 챙기려는 정치모리배들이야 그렇다고 치자. 그러나 당신들 언론과, 법으로 심판을 내리는 판사들은 건전한 상식이 있고 최소한의 국가의식이 있고 일반인들과는 좀 다른 데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공권력이든 폭력배든 1:1의 가치로 놓고 따지는 ‘공정보도’라는 잣대와 공공의 이익 이전에 1:1의 가치로 놓고 인권을 따지는 ‘인권잣대’ 때문에 우리 사회는 중요한 고비가 닥칠 때마다 가닥을 잡지 못하고 올바른 방향을 향해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그래서 사회는 점점 더 혼란해지고 험악해지고 있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는가? 국가적 위기에 처했을 때 헌법적 가치에 입각한 냉혹한 법집행과 국가와 사회, 국민 전체의 보다 나은 미래를 염두에 둔 언론의 역할은 바른 길을 걷게 하는 두 다리나 다름없다.

국가 사회가 이처럼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어쉴픈 공정보도'나 내세우고 '설익은 인권잣대'나 들이대는 언론과 재판부가 함부로 떠들어대고 멋대로 판결을 내린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

나라가 적의 수중으로 넘어가거나 군이 목숨을 걸고 나서기 전에 언론과 재판 종사자들부터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사회가 혼란에 빠지고 나라가 흔들리면 공정의 잣대와 인권의 잣대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공권력을 뒷받침하는 언론과 헌법을 지키는 사법부부터 우리 사회와 국가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堡壘)라는 자각으로 난국 수습에 나서야 할 때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그렇게 한가하지 않다. [필자]



한국전 순직 종군기자 추도식

한국기자협회(회장 박종률)는 지난 4월 27일 오전 11시 경기도 파주시 통일공원 내 한국전 순직종군기자 추념비 앞에서 6·25전쟁 당시 전장을 누비며 종군기자의 소임을 다하다 순직한 국내외 종군기자들을 추모하는 추도식을 거

행했다. 이날 추도식에는 대한언론인회 김은구 회장, 흥원기 명예회장, 김성배 감사, 정기정 감사, 이형균 부회장 등 임원진과 6·25 참전언론인회 지용우 부회장, 지갑종 고문, 한영섭 감사를 비롯한 6·25 참전언론인 다수가 참석했다.

언론가 소식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 재선임

동아일보는 3월 27일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어 김재호 대표이사 사장을 재선임했다.

변용식 TV조선사장선임

(주)조선방송(TV조선)은 3월 27일 제4기 정기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어 변용식 전 조선일보사 발행인을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했다.

이종환 서울경제 부회장선임

서울경제신문은 4월 3일 이사회를 열어 이종환 대표이사 사장을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선임했다.

이선근 연합인포맥스 사장선임

연합뉴스는 3월 27일 자회사인 (주)

연합인포맥스 사장에 이선근 전 연합뉴스 논설위원실장을 선임했다. 이 사장은 현재 관훈클럽 총무를 맡고 있다.

신문윤리 위원장에 이흥훈 전 대법관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이사장 김기웅·한국경제 사장)는 4월 8일 오후 프레스센터 19층 국화실에서 제116차 이사회를 열고 위원장에 이흥훈 전 대법관을 인준했다. 이 위원장은 제1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1996),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1998), 제주지방법원장(2004), 서울중앙지방법원장(2005), 대법원 대법관(2006)을 지냈으며, 2013년부터 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정치목적 보훈정책 전면 대수술

광복 70주년 한반도 안보와 국가보훈 대 토론회

대한언론인회 6·25참전언론인회는 지난 4월 16일 오전 10시 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100여명의 청중이 참석한 가운데 ‘광복70년 한반도 안보와 국가보훈’을 주제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운종 상임이사의 사회로 2시간 40분 동안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유영옥 국가보훈안보연구원장의 주제발표와 지용우 전 경향신문 논설실장, 문명호 대한언론인회 주필, 이도형 전 한국논단 발행인, 박명서(통일미래사회연구소 이사장), 최현수 국민일보 부국장(군사전문 기자)이 토론자로 참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은구 대한언론인회 회장은 개회 인사에서 토론회를 후원해준 서울지방보훈청에 감사사를 표시하고 “국가를 위해 싸우다가 희생된 호국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올바르게 하자는 것은 곧 국가를 수호 발전 시켜나가는 정신적인 토양을 구축하는 일이며 이번 토론회가 한반도 안보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국가보훈 의식을 범사회적으로 확산하는 일대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기병 6·25참전언론인회 회장은 특히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정부의 보훈정책이 상당한 발전을 거듭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6·25참전유공자의 입장에서 여러모로 미흡한 감을 느끼게 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현행 6·25 참전유공자에 대한 보상에 개선의 여지가 많음을 시사했다.

한편 안중현 서울지방보훈청장은 축사에서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국가보훈정책의 발전적인 대안들은 만년대계의 국가발전과 번영을 향한 국민정신 결집의 튼튼한 밑거름으로 소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된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김은구 대한언론인회 회장



박기병 6·25참전언론인회 회장



안중현 서울지방보훈청장

본회 6·25참전 언론인회 주최 토론회 개요

일 시 : 2015년 4월 16일 오전 10시
장 소 : 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
주제발표 : ‘광복 70주년 한반도안보와 국가보훈’
유영옥 박사(국가보훈안보연구원장)

토론자(가나다순)

문명호(대한언론인회 주필)
박명서(통일미래사회연구소 이사장)
이도형(전 한국논단 발행인)
지용우(전 경향신문 논설실장)
최현수(국민일보 부국장 군사전문기자)

사 회 : 정운종(대한언론인회 상임이사)



100여명의 청중이 몰려 열기로 가득찬 토론회장.

핵무장 북한정권 변하지 않았다

먼저 광복 70년의 오늘까지 한 치도 변하지 않은 북한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북한은 미사일을 다양화, 정확도도 백발백중 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작년 한해만도 공식, 비공식적으로 20여 차례에 걸쳐 200여발을 실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민은 굶어죽는데 막대한 돈을 핵과 미사일 개발에 쏟아 붓고 선군정치로 군사훈련을 강화하고 있으면서 남한과 미국을 위협하며 체제결속과 정권안보에만 매달리는 북한정권의 속성은 반인민적, 반민족적이고 야만적이며 호전적인 대한민국 전복집단이다.

향후 남북관계를 풀어나갈 때도 김정은 정권의 이 같은 변치 않는 속성을 꿰뚫어보고 접근해야 하며 만의 하나라도 대북정책에 허점을 보일 경우 그들의 전술에 말려들 개연성이 있다

주제발표<요지>

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개선돼야 할 보훈정책

국가안보를 확산시키고 보훈정신을 국민정신으로 내면화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이고 일방적인 애국심 강요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나라사랑 정신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유치원 과정에서부터 관련 교육내용을 포함시켜야 하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인 목적에서 벌여놓은 보훈관련 법령과 집행관청도 일



유영옥

·국가보훈안보연구원장

원화해야 한다.

KAL기 격추사건, 아웅산 폭파사건, 천안함 폭침시 특별법을 제정한 일이 없다. 세월호 희생자에겐 미안하지만 이런 식으로 보상하기로 들면 경서중학 수학여행사고나 성수대교 붕괴, 대구 지하철 사고 희생자 모두 특별법 만들어 보상해야 맞지 않은가. 또한

4·19나 광주민주화 운동 유공자를 국가유공자에 포함한 것도 문제다. 이들은 엄격히 국가유공자로 예우하기보다 민

주화유공자로 분류해야 한다. 6·25참전 국가유공자들을 진정한 국가유공자로 인정한다면 기초생활수급자 1인기준 최저 생계비 617,281원은 드려야 한다. 예산운은 하는데 학생들의 무상급식비를 이쪽으로 돌리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본다.

반역사관 주입교육이 문제다.

현 역사교과서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객관적 사실을 도외시한 민족 분단의 책임 문제, 미군은 점령군이고 소련은 해방군이라는 식의 북한 역사관적 왜곡, 대한민국 건국과정에 대한 일방적 해석 및 역대 정부 정통성에 대한 감정주의적 폄하 등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정부당국은 좌편향적으로 경도된 역사교과서를 바로잡고 좌익문

9면으로 이어집니다.

‘건국절’ ‘6·25절’제정 추진할 때다

광복 70주년 한반도 안보와 국가보훈 대 토론회

〈토론자〉



문명호
대한언론인회 주필



박명서
통일미래사회연구소 이사장



이도형
전 한국논단 발행인



지용우
전 경향신문 논설실장



최현수
국민일보 부국장



사회 정운종
대한언론인회 상임이사

〈종합토론〉



지갑종
6·25참전전국연합회 회장



한영섭
6·25종군기자회 회장



맹태군
전 경향신문 편집위원

8면에서 이어집니다.

제의 실상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하고 현실적인 대(對)좌익정책을 수립 실행해야한다.

안보불안 자초하는 반미 중복단체

전교조는 좌익이념 특유의 언어혼란 전술인 선전·선동을 이용하여 어린 학생들에게 우리의 이익에 반하는 왜곡된 교육을 해오고 있다. 전교조는 북한의 대남적화해명노선인 ‘미군철수’, ‘국보법 철폐’, ‘평화협정 체결’, ‘연방제 통일’을 그대로 주장하고 있다.

또 천주교 신부 모임인 정의구현전국사제단도 그동안의 행적에서 드러난 대로 ‘국가보안법 폐지와 미군 철수’, ‘사드배치 반대’ 등 북한의 대남적화해명노선에 동조하고 있다. 이들 종북, 친북, 좌파세력들을 방치하는 한 우리 안보는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국가 정체성 확립에 있어 건국기념절

은 매우 중요하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을 기념해 건국절을 제정할 것을 건의한다. 정부수립일만 있고 건국일이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6·25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만하지 말고 6·25절(가칭)을 제정해 6·25 납침의 참혹성과 뼈아픈 교훈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부처로

한때 장관급 부처였던 국가보훈처가 차관급 부처로 전락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다. 국가보훈처는 현재 각부의 청과 같은 차관급에 준한다. 따라서 국가보훈처장은 국무회의의 구성원이 되지 못하고, 각 부의 하부기관에 불과하기 때문에 보훈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어렵게 하고 있다. 적극적인 국가보훈정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 그리고 국가적인 정책으로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훈처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해야 한다. [4]

토론내용〈요지〉

6·25유공자 생활급 지급 당언 지용우(전 경향신문 논설실장)

6·25참전 16개국 가운데 하나인 호주의 경우는 한국전 참전 군인들에게 매달 2,200달러(약 239만원)씩 통장에 입금시켜주고 있다. 그뿐만이 의료비와 가스요금 전액면제 혜택까지 주고 있다. 국력의 차이를 감안한다 치더라도 겨우 매달 18만원이 전부인 우리나라의 현실과는 하늘과 땅 차이인 셈이다. 6·25참전국가유공자에게 60여만원의 생활급을 지급하자는 주제발표자의 주장에 적극 찬성한다. 6·25참전 유공자 예우는 당연한 국가책임이다.

좌파 역사교과서 문제 문명호(대한언론인회 주필)

외국에서 직접 보고 느꼈지만 보훈은 물질적인 내용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깊은 감사와 존경이 보훈의 정신적 근간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경우 역사교과서가 이른바 좌파 학자들에 의해 우리 역사가 비뚤어지게 기술되어 있고 이를 액면 그대로 가르치고 있는 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국가의 상징인 태극기에 예를 표하지 않거나 애국가를 부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크게 잘 못된 것이다.

‘국가유공자’ 명칭 남발 말아야 이도형(전 한국논단 발행인)

6·25참전자들은 민주보다 한 차원 높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피 흘리며 싸웠다. 4·19나 5·18의 희생자나 부상자, 심지어는 시위에 가담했던 사람들도, 6·25참전 국가유공자와 똑같은 ‘국가유공자’의 명칭으로 불리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종북 좌파세력의 반체제 시위를 문제 삼았는데 이들의 배후에는 북한의 조선노동당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단순해난사고인 세월호 침몰을 정권퇴진운동으로 몰고 가거나, 광주병 소동에서 보듯이 그 배후에는 불순세력이 존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건국절 제정 국민공감대 필요 박명서(통일미래사회연구소 이사장)

국가유공자의 위국정신을 국가발전의 기초를 이룰 수 있는 국민정신으로 승화시켜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국절 제정도 고려해볼 만하다. 여기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고 가칭 6·25전쟁절 제정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북한의 핵문제나 6자회담에 임하는 시각에는 한·미·일간 서로 차이가 있는데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디까지 참고 있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보훈정신 생활화 대책 아쉽다 최현수(국민일보 부국장·군사전문기자)

최근 보훈교육과 정책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낮은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훈정신을 일깨우기 위해서는 사람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외딴곳에 전적비를 세울게 아니라 주민들이 쉴 수 있고 각종 모임이 가능한 공간에 조성하는 것이 보훈정신 함양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학교교육을 통한 보훈교육도 중요하지만 각종 SNS를 통한 홍보와 교육, 어머니와 선생님을 상대로 한 역사교육 등이 많이 요구되며 그 내용도 보다 세련되어야 한다.

종합토론〈요지〉

지갑종(6·25참전전국연합회 회장) 한영섭(6·25종군기자회 회장) 두 원로회우와 맹태군(전 경향신문 편집위원)회우는 종합토론에서 6·25 전쟁을 절대 잊어서 안 되며 6·25참전 국가유공자들의 예우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개선돼야한다는 의견에 공감을 표시했다. 지갑종 원로회우는 특히 마지막으로 사망하는 6·25참전유공자의 장례를 국장으로 치르도록 하자고 건의했다. 맹태군회우는 건국절을 제정해 건국공로자도 국가유공자로 예우할 뿐 만 아니라 차제에 국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공직에 임용될 수 없게 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제재형 대한언론인회 고문은 질문 형식의 발언에서 천안함 폭침이나 아웅산 테러 모두 특별법을 제정하바 없다며 단순교통사고인 세월호 특별법과 보상에 문제를 제기했다. 정일화 회우(전 한국일보 워싱턴 특파원)도 메모지형식의 질문서에서 대한민국 건국과 국가수호과정(전쟁)에 공헌한 외국인에 대한 예우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묻고 안 되어 있다면 바로잡아야한다고 강조했다. [4]

〈정리 : 정운종 상임이사, 사진 : 이보길 회원사업위원장〉

언론을 말한다

Inside Journalism

인사이드

종편 시대 스타PD의 빛과 그늘

선천계서는 아나운서가 되고 싶었다고 내게 말씀하셨다. 일제 치하에 나서 전쟁과 혼란의 시대를 사신 선천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잘 하셨는데 아나운서가 로망이었던 것이다.

박종세 선배로부터 5·16 비화를 들은 적이 있다. 그날 새벽 KBS로 들이닥친 군인들이 당직 아나운서였던 박 선배에게 ‘혁명 공약’을 읽으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엔지니어가 없는 상태였다. 엔지니어가 있어야 방송이 가능하다고해도 그들은 이해를 못하더라는 것이다. 아나운서면 됐지 엔지니어는 또 뭐냐는 식이었다는 거다.

나도 1974년에 KBS 입사 시험을 보기 전까지는 방송국은 아나운서가 다하는 곳인 줄 알고 있었다. 기자는 신문사에 있는 것인 줄 알았고, PD직은 아예 존재 자체를 몰랐다.

프리랜서 PD 시대 활짝

그런데 1991년 민영 SBS가 개국하자 아나운서를 계약직으로 채용했다. 이는 전문 MC

시대의 개막 선언이기도 했다. 이제는 KBS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방송사들이 아나운서를 계약직 또는 프리랜서로 쓰고 있다.

아나운서 시대가 가고 PD 시대가 왔다. 보도에도 PD들의 제작 개념이 도입되었고, PD들이 직접 보도를 하는 프로그램들도 있다. PD가 방송사의 왕이 된 것이다.

아나운서 시대에 스타 아나운서들이 출현했듯이, PD 시대에도 스타 PD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들은 종편 시대가 되자 프리 선언을 하며 자신의 경쟁력으로 사실상 1인 기업들을 창업하고 나섰다. 프리랜서 아나운서 시대에서 프리랜서 PD 시대가 열린 것이다.

드라마에는 안판석 PD가 있다. 그는 종편이 열리자 소속사에 사표를 내고, 종편에 〈아내의 자격〉이라는 드라마를 내보냈는데 성공이었다. 종편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지상파를 위협하는 시청률을 기록하며 명 드라마라는 평을 받았다.

그는 이어 〈밀회〉라는 드라마를 연출했는데 이 또한 성공이었다. 연이은 성공을 발판으로 마침내 안 PD는 지상파와 계약하고 새 드라마 〈풍문으로 들었소〉를 내보내고 있다. 손대는 드라마마다 화제를 모으며 성공하니, 그는 명품 PD라는 찬사를 받으며 캐스팅과 제작진 구성을 자유 의지로 하는 사실상 드라마 기업의 CEO가 되었다.

예능에는 나영석 PD가 있다. 그도 종편 시대와 함께 소속사를 그만 두고 자유롭게 제작에 나섰다. 그는 70, 80대 노배우들을 배낭여행에 내세우는 〈꽃보다 할배〉를 내보내 성공하자, 출연자들을 중장년 여성 연기자들로 교체



유자호

·본보 편집위원
·전 KBS 파리티파원
·전 한국방송기자클럽 회장

드라마·예능·고발프로서 각광
‘1인기업’ 人氣지속 여부 관심

해 〈꽃보다 누나〉라는 이름으로 연속 성공했다.

나 PD의 센스는 그 후속 작에서 드러났는데, 그것은 〈삼시세끼〉다. 세 남자를 아무 대책 없이 어촌에 내버려두고 하루 세끼를 챙겨먹도록 한 것이다. 아무런 줄거리도 연출도 없는, 심심하기 짝이 없는 이 프로그램이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성공한 것 자체가 이번이라고 할 만하다.

연이은 성공에 힘입어 나 PD는 〈꽃보다 할배〉팀에 젊은 여성 연기자를 추가해 그리스 편을 내보내고 있다. 한 사람 잡기도 쉽지 않은 톱 탤런트들을 고정적으로 여럿 묶어서 해외에 장기 촬영을 내보낼 수 있는 나 PD는 오늘과 같은 인기 연기자 시대에 자의로 프로그램 기획할 수 있는 예능 프로그램의 CEO라고 할 만하다.

교양에는 이영돈 PD가 있다. 그는 당초에 KBS에서 소비자 보호 프로그램으로 이름을 알렸다. 그 지명도를 바탕으로 SBS로 갔다가 다시 KBS로 돌아갔고, 종편이 생기자 채널A에서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이 성공하자 JTBC로 이적했다.

그의 영향력은 막강했다. 내가 어느 중소도시에서 갔을 때 그 지역 인사로부터 한 식당을 안내받은 적이 있다. 그 식당에는 이영돈 PD가 ‘착한 식당’이라고 방송했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중국에 갔을 때는 가이드가 안내한 가게에 이영돈 PD의 사진과 함께 그가 칭찬했다는 상품이 소개돼 있었다. 영향력이 이 정도 되면 그는 소비자 보호 프로그램의 CEO라고 할 만하다.

그런데 모든 빛에는 그늘이 있다. 안판석 PD가 그의 드라마에서 일관해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대한민국 최상류층의 위선과 부도덕에 대한 풍자이다. 그의 드라마는 일종의 블랙 코미디라고 할 수 있는데 독설 드라마라고도 볼 수 있다. 특수층에 대한 새타이어인만큼 대다수 시청자들은 시원함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안 PD의 최상류층 블랙코미디는 소재 선택의 폭을 넓힐 때가 됐다는 것을 이번 〈풍문에서 들었소〉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 작품은 전작(前作)들에 비해 흐름이 지루하고 완성도도 떨어진다. 이야기가 새롭지도 않고 작위적이다.

연출자-경영인 선택 기로에

안 PD는 연출자와 경영인의 기로에 서게 될 가능성이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그의 재능을 드라마 연출로 꽃피워 주기를 바란다. 경영은 전혀 다른 분야이다. 탁월한 드라마 PD였던 김종학 대표의 경우도 돌아보기 바란다.

나영석 PD는 무연출의 연출로 성공하고 있는 특수한 경우이다. 〈꽃보다...〉시리즈나 〈삼시세끼〉는 제작진이 환경만 조성해주고 카메라는 출연자들을 따라가는 형식이다. 이 프로그램들에서 나 PD는 제작자라기보다 화면에 함께 등장하는 출연자와도 같다. 참 희한한 제작 방식인데 이것이 또 자연스러워 보인다. 그러다보니 수더분한 외모의 나 PD는 시청자들에 낮은 인기인이 됐다.

그러나 이번 〈꽃보다 할배 - 그리스 편〉은 과거 ‘할배’들이 그대로 등장하는 배낭여행이라는 점에서 신선도가 현저히 떨어졌다. 차라리 〈삼시 세끼〉를 출연자를 여성들로 바꿔 이어가는 편이 나았을 것이다.

이영돈 PD는 보도와 제작의 경계를 넘나들었다. 그는 기자들이 엄하게 교육받는 보도 윤리 측면에 어두웠다. 그 결과 그는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기업의 제품 광고에 등장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그 대가는 가혹했다. JTBC는 그와 계약한 프로그램들을 모두 폐지했다. 조선일보의 사설에서 ‘방송을 통해 얻은 명성과 영향력을 사적(私的) 이득과 맞바꿈으로써 방송의 공정성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언론을 욕되게 하고 시청자들을 우롱했다’고 비판했다. 이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방송인에게 생명의도 같은 시청자들의 신뢰를 잃었다는 점이다.

이영돈 PD는 뺏속 기자가 아니었다. 그러면서 보도의 영역을 넘나들다 기자라만 생각할 수 없는 행위를 했다. 이는 탐사 프로그램을 다루는 PD들이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일이다. [4]

신문·뉴미디어

5월 12~15일 서

서울시민청(서울시청 청사 지하 1, 2층)과 서울광장에서는 5월 12~15일 나흘간 ‘2015 신문·뉴미디어 엑스포’가 열린다.

이번 엑스포는 뿌리미디어로서의 신문의 역할과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한편, 뉴미디어로 진화한 신문의 새로운 모습도 한 눈에 보여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컨퍼런스, 전시, 체험 등 크게 나누어 진행되며 주요 행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신문협회 및 서울시 공동주최.

▶ 개막행사

12일 11시 시민청 활짝라운지에서 공식 개막 행사를 연다. 개막식에 앞서 신문의 날 표어 공모전 및 2015 한국신문상, 신문협회상 수상자들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된다.

▶ 전시행사

시민청에서는 신문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카툰, 만평, 4컷 만화를 신문사별로 전시하고, 신문이 뉴스, 담론, 생활정보, 지식 등 정보의 보고(寶庫)일 뿐 아니라 정보와 지식의 1차 생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 또한, 한국의 역사적 사건 30개를 골라 동일 사건을 신문사들이 어떻게 다른 시각으로 보도했는지 비교 전시한다. 관람객들이 직접 사진을 찍고 편집하여 ‘나만의 신문’을 만드는 체험공간도 제공된다.

서울광장에는 한국신문협회 회원사 및 유관

정보가 넘칠수록
신문은 더욱 돋보임

올해 신문의 날 표어는 ‘정보가 넘칠수록 신문은 더욱 돋보임이다’로 선정됐다.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는 제59회 신문의 날 표어 대상에 홍대업씨(43)의 작품을 뽑아 신문주간인 4월 6~11일 회원사 지면에 게재해 신문의 가치를 홍보했다.

2015년 한국

한국신문협회는 2015년 한국신문상 수상자를 선정, 27일 발표했다.

뉴스취재보도 부문 수상작으로는 한겨레신문의 ‘대한항공 ‘평공회항’ 사건’ 관련 보도와 강원도민일보의 ‘IOC의 평창올림픽 분산개최 권고’ 제하의 보도가 각각 선정됐다.

기획·탐사보도 부문에는 동아일보의 ‘외상후

저널리즘

Inside Journalism

언론을 말한다

엑스포 열려나

울시청 시민청서

기관의 홍보부스가 설치된다. 신문사 및 유관 기관들은 이곳에 홍보 부스를 설치하고 자사의 간행물 전시, 활동 사업, 발전방향, 독자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 등을 보여준다.

신문사 홍보부스와 함께 시청 앞 잔디광장 둘레엔 각사에서 선정한 보도사진과 사진기자 협회와 공동으로 한국보도사진전 수상작이 전시된다.

▶ 컨퍼런스

13일 ‘신문의 사회적 가치와 기능 발전 방안’ (발제 : 배정근 숙명여대 교수)과 14일 ‘미디어수용자 조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발제 : 권상희 한양대 교수) 등을 주제로 한 공개 세미나가 열린다.

언론사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 등을 위한 취업설명회에 중앙일보를 비롯한 6개 신문사가 참여한다.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NIE(신문활용교육) 수업을 초등, 중등으로 구분해 진행한다. 또한 전문기자 특강을 통해 취재현장의 생생하고 깊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밖에 관람객을 위한 부대행사로 회원사가 개최하는 공연, 캐리커처 그리기, 신문OX퀴즈, 마술쇼 등 이벤트가 시민청 활짝라운지에서 매일 진행된다.

(엑스포 공식사이트(www.nexpokorea.or.kr) 또는 한국신문협회 홈페이지 참고.)

허승호 (한국신문협회 사무총장)

니다

59회 신문의 날 표어선정

심사위원들은 “정보가 넘쳐나는 요즘 ‘풍요 속의 빈곤’에 허덕이는 독자들이 진정 목말라 하는 건 ‘믿고 볼 수 있는 뉴스’”라며 “이런 뉴스를 전달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매체가 신문이라는 점을 표현한 작품”이라고 선정이유를 밝혔다.

신문상 선정

스트레스증후군(PTSS) 치료시스템 고발’ 보도와 부산일보 ‘석면쇼크, 부산이 아프다’ 제하의 인터랙티브 보도가 각각 뽑혔다. 시상식은 5월 12일 오전 10시 서울시민청 지하1층에서 열리는 신문·뉴미디어 엑스포에서 갖는다. 상금 500만 원.

‘성완중 뇌물’ 후속 심층보도 절실

신문시평



박석홍

·본보 편집위원
·전 문화일보 편집국장 대우
·전 언론법학회 감사

“정경유착 부패척결” 한목소리
반동세력 반정부음모 차단해야



성완중씨와의 인터뷰내용을 처음 단독보도한 경향신문 지면.

를 연 성완중 전 경남기업 회장은 2차례 유죄 판결을 받고 노무현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범죄 전력이 있고 250억 원대 불법 비자금 조성과 9500억 원대 분식 회계 혐의로 검찰에 소환됐던 권력형 정치 부패의 상징적인 인물이다. 성원종이 저질렀던 권력형정치부패가 어떻게 가능했으며 왜 국가가 부정부패를 막지 못했나를 분석 해석하는 심층 분석 보도가 부족했던 것이 아쉽다. 노무현정부의 두 차례 성완중 특별사면이 부적절하게 진행되고 거액의 뇌물이 정치권에 뿌려진 것으로 신문들이 보도했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 그렇게 믿고 있다. 성완중이 공개한 현정권 실

세에 대한 뇌물 전달과 함께 노무현·이명박 정부와의 부적절한 관계와 불법대출도 탐사보도 해야 할 쟁점이다.

신문은 대아건설·경남기업의 부정과 부패를 살살이 뒤져서 최고 권력과 결탁한 정상배의 비리를 밝혀, 역사의 반면 교재로 삼게 해야 할 것이다. 이번 기회에 정경유착의 숙폐(宿弊)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 만약 머뭇거리면 한국도 남미처럼 부패를 청산하지 못하고 종속국가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성완중 뇌물사건과 함께 수사중인 방위산업비리·해외 자원 개발 관련 범죄·대기업 비자금 조성·공직 기강 해이 등의 부조리 발본색원에도 신문들이 동참해야 할 것이다.

‘깨끗한 국가’ 만들기 지원 필요

3월 박근혜정부의 권력형 부패와의 전쟁선언과 4월 성완중자살 사태 후 사회과학계도 ‘부패’ ‘공정성’ ‘신뢰’ ‘민주주의’와 규범과 발전 등을 주제로 한 학술회의를 잇달아 열고 권력형 정치부패의 원인과 처방을 토론했다. 양승함 전 정치학회장(연세대교수)은 노무현·이명박 정부의 권력 실세들이 새 지배연합을 형성하고 배타적인 배제의 정치를 통해 정치 부패와 갈등 구조를 극대화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년 ‘배제’·‘반동’·‘반란’의 정치로 무도덕적 가족주의, 친인척주의, 연고주의, 지역주의, 공공영역의 사유화, 권력의 사유화, 인치주의, 사회주의, 종북주의가 만연돼 권력형 정치부패가 심화됐으며 민주화에 대한 피로감까지 노정케 됐다는 지적도 있다. 박근혜 대

통령은 초지일관 부패 정치 세력을 숙청하여 ‘깨끗한’ ‘정의로운’ 국가를 반석 위에 올려놓아야 할 것이다.

울곡은 타계하기 2년전 상소문에 “적을 토벌하지 않고, 망하길 기다리는 것 보다는 토벌하는 것이 낫다”는 제갈량의 고사를 인용하며 “지혜 있는 사람을 발탁하여 뜬 여론을 잠재우고 국가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충고했었을 오늘에 돌아볼 수 있다.

성완중 사태를 빌미로 권력형부패척결을 반대하는 정상배와 종북세력들의 선전선동과 정부 전복 음모가 심상치않다. 양식 있는 신문이 이 반동 세력을 차단해야 할 것이다. [필자]

충남도지사를 역임한 이완구 총리가 3월 12일 부정부패 발본색원을 선언한 지 한 달이 채 안 되는 4월 9일, 성완중 전 경남기업 회장의 자살에 이어 성희장이 권력 핵심부에 제공했다는 뇌물 내역과 명단을 언론이 공개했다. 성완중의 폭로는 4월 10일 경향신문 보도로 시작됐다. 성완중회장이 자살하기 전날 저녁인 9일 오전 6시부터 50분간 소상하게 폭로했고 경향신문이 이를 녹음 공개한 것이 구약정치 척결의 도화선이 된 것이다.

경향신문 특종이 도화선 역할

이러한 경향신문의 특종이후 모처럼 한국 신문이 한 목소리로 정치개혁을 촉구했다. 총리가 사의를 표명했고 검찰이 인터뷰의 진실을 입증할 자료들을 공개하게 한 것은 평가 할 만하다. 그러나 권력형 정치 부패의 판도라 상자

‘孝운동’으로 ‘도덕적 모델국가’ 만들자

가정의 달



임덕규

·본회 회우
·영문 월간 ‘Diplomacy’ 회장
·11대 국회의원

경제발전 모델로
세계에 알려진 한국
물질만능에 묻혀
이미지 훼손

서양인도 존경하는
孝사상 선양
국가정책 반영을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기적적인 경제발전 모델국가’로 높이 평가 받고 있다. 전 세계 200여 나라 중에 약 170여 나라는 한국의 기적적인 경제발전을 극찬하면서 열심히 따라오고 있다. 필자는 지난 40여 년 동안 약 500여명의 세계 정상(왕, 수상, 대통령) 들을 직접 만날 정도로 영문 월간외교 ‘Diplomacy’를 세계적인 미디어로 성장시키면서 세계정상들로부터 한국경제의 발전 모델을 극찬하는 말을 수없이 들었다.

‘한국’을 배운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수상

한국경제발전을 제일 열심히 배우면서 잘 따라온 지도자는 말레이시아 마하티르(Mahathir) 수상이다. 그는 70년대 후반 교육부장관 때부터 방한을 시작하여 수상을 18년 하는 동안에도 한국을 열심히 배웠다. 그는 한국을 약 20번이나 방문하면서 ‘동방정책’ (Look east policy)을 주장, 실천하였다. 필자가 “동방은 어느 나라를 뜻하십니까?”라고 질문했더니 “물론, 한국이지요”라고 명쾌하게 답을 하였다. 중동의 지도자들도 “기름이 전혀 없는 한국을 모델로 발전시켜야 한다!” 아프리카 정상들도 “한국이 60년대 초까지는 대부분 아프리카 국가들보다도 못살던 나라였는데 단 몇십 년 만에 선진국으로 발전했으니 아프리카 국가도 한국처럼 발전할 수 있다!” “한국은 아프리카의 희망의 나라다. 열심히 한국을 배우자!”라고 외치면서 부지런히 따라오고 있다. 중남미 어느 나라 대통령은 한국에서 외교관으로 있으면서 박정희 대통령을 연구하여 그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 열심히 국가발전을 시키고 있다. 따라서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위상은 명실공히 ‘세계경제발전 모델 국가’로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참으로 자랑스러운 일이다. 한국은 불과 수십 년 만에 폐허에서 세계 일류국가로 된 기적의 나라가 되었으니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그런데 필자는 얼마 전에 주한 아프리카대사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 아프리카대사는 “임박사님! 유럽에서는 수백 년 걸려서 민주주의 발전과 자본주의 경제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불과 수십 년 만에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두 가지 기적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계에서의 한국이 경제 발전 모델국가로 생각하고 열심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신문에서 지난 1년 동안 1,700여명의 고등학생들이 자살했다는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요? 따라가도 되겠습니까? 임박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을 듣고 말문이 막혔다. 순간 1968년 12월 3일 필자가 주장한 사실이 현실로 나타난 것을 실감했다. 그날은 국민교육헌장선포(12.5) 직전에 전국의 논설위원과 편집국장 약 50명을 영빈관 (현 신라호텔)으로 초청, 박종홍 대통령 사회특보로부터 ‘국민교육헌장’ 최종안을 설명 들었다. 필자는 박종홍 박사께 “초안에는 ‘효도’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왜 뺐습

니까? 다시 효도를 넣어야 합니다. 앞으로 물질만능세상이 되면 나라에 혼란이 옵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바로 필자가 예측했던 사회가 온 것을 실감했다. 따라서 이런 난세, 특히 물질만능세상을 극복하려면 효 사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토인비교수도孝사상에 감탄

필자는 1973년 9월 영국이 낳은 20세기 서양의 최고 석학 토인비 (Arnold Toynbee) 교수를 만났다. 필자가 토인비 교수에게 “서양에 와보니 물질만능사상이 너무 팽배되어 인간으로서의 도덕이 무너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면 양로원을 가보니 노인들은 쓰다 버린 자동차처럼 버려져 있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한국은 가난하지만 효(孝)사상이 있어 자손들이 평생 동안 부모를 봉양하고 있으니 서양노인들보다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과연 서양식 국가발전방법이 옳다고 보십니까?”라고 하였다. 당시 86세 되신 서양의 대표적인 석학 토인비교수는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며 “임선생! 듣고 보니 효(孝)사상은 인류를 위해서 가장 훌륭한 사상입니다. 한국에서 영원히 보존할 뿐 아니라 서양에 와서 캠페인을 벌여주시오. 나도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인생이란 자식은 부모를 버릴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부모는 자식을 버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내 아들이 천리 밖 ‘육사’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데 한국처럼 같은 집에서 살 수는 없지만 같은 마을로 이사 가서 전화라도 자주 하면서 살려고 내년에 이사가려고 합니다” 하시면서 순간 깊은 생각에 잠기는 모습을 보였다. 그 후 1974년에 토인비교수는 ‘육사’로 이사하여 1975년에 타계하셨다. 토인비 교수를 모시고 효(孝)사상 캠페인을 못한 안타까운 아쉬움이 솟구친다.

그 후 43년이 지난 한국사회는 얼마나 변했는가? 1년에 노인 만 명 이상이 자살하여 OECD 국가에서 노인최악의 사회가 되었다. 그뿐 아니라 인명경시사상 물질만능사회로 돌변되었다. 과연 한국사회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심각하게 깊이 생각해야 한다. 이제 대한민국은 경제적인 발전모델국가뿐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세계적인 모델국가가 되어야 한다. 도덕의 핵심은 무엇인가? 효(孝)사상이다. 효의 핵심은 신체발부(身體髮膚) 수지부모(受之父母) 불감훼손(不敢毀傷) 효지사야(孝之始也) 입신행도(立身行道) 이현부모(以顯父母) 효지종야(孝之終也) 이다.

요컨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몸을 건강하게 사는 것이 효의 시작이고, 명예롭게 살아서 부모 명예 또한 빛내드리는 것이 효의 마지막이라는 뜻이다. 한마디로 첫째는 건강하게 살라. 그러니까 자살은 최악의 불효가 된다. 둘째는 명예롭게 살라. 얼마나 중요한 진리인가. 이제 국가정책으로 부모를 모시고 사는 자손에게는 아파트 분양 우선순위를 비롯해서 각종 우선권을 주어 구체적으로 효(孝)사상을 선양해서 도덕적으로도 세계적인 모델 국가로 만들자고 제창한다. [4]

PR페이지

PR페이지

센텀시티 ‘한국의 실리콘 벨리’를 꿈꾼다 부산시 글로벌 스마트시티 실증단지 조성 공모사업 유치

부산시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주관하는 ‘글로벌 스마트시티 실증단지 조성’ 공모사업 유치에 성공했다. 4월 29일 발표했다.

부산시는 SKT와 산학연 컨소시엄을 구성해 강력한 경쟁상대였던 인천-KT 간 컨소시엄을 물리치고 IoT 기반의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의 선도 도시 발판을 마련했다.

부산시는 지난해 10월 ITU 전권회의를 개최하면서 사물인터넷 기반의 스마트시티 조성을 선언하고, 해운대지역을 대상으로 한 IoT 기반 실증사업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한 스마트시티 생태계 조성 계획, 부산대학교 사물인터넷 연구센터, 부산대학교 빅데이터처리 플랫폼 연구센터, KAIST 사물인터넷연구소, ETRI 융합기술연구소와 협력사업으로 스마트시티에 대한 연구와 선도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2019년까지 IoT인력 1,500명, 창조기업 150개, 글로벌 강소기업 15개 육성, 글로벌 공동서비스 15개 발굴을 목표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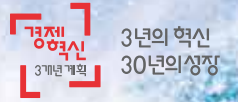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한 서비스 실증 모델은 △즐거움과 편리함을 주는 관광 및 교통인프라 △지능형 방범/방재 인프라 기반의 안전도시 △에너지 절감 실현의 녹색 도시 △시민 주도형 사물인터넷 선도 도시 등 4대 테마를 설정한다. 해운대 센텀지역에 테스트베드를 구축해 우선적으로 시행할 시범서비스 모

델로는 미아찾기, 외국인 대상 스마트 안전단말 대여, 스마트 파킹, 스마트매장, 에너지 세이브, 스마트 횡단보도 등으로 2019년까지 25개의 서비스를 확대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부산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상스마트시티는 바르셀로나처럼 전통적 제조업을 지식·정보통신산업과 연구개발, 도시형 제조업 등 고부가가치 신산업으로 고도화하고 산업과 상업, 주거, 문화가 어우러진 복합용도로 개발하는 것으로 스마트 팩토리를 통한 ICT융합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미음지구 글로벌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단지와 연계한 서부산권 ICT 융합벨트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다.

반여도시첨단산업단지에도 소프트웨어 융합 연구개발(R&D) 기업 및 인력을 양성하고, 벤처 창업과 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도시첨단산업단지를 기업 간 전자 상거래와 관광·마이스(MICE) 산업 유치의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반여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이 2019년 완료되면 기존 센텀시티와 석대·회동 산업단지를 잇는 국내 최대의 도시산단 벨트가 완성돼 연간 수천억 원의 고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동부산권 발전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광역시 제공)



누군가에게는 벽이지만 산업은행에게는 길입니다

민간참여가 어려운 영역에서의 Risk Taker
금융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Market Leader
대표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외동포 복수국적 허용 확대할 필요”

대한언론인회(회장 김은구)와 재외동포언론인협회(회장 김훈)가 공동주최한 제14회 재외동포언론인대회가 4월 24일 오전 10시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개막식을 갖고 고양 제주 창원 통영등지를 순회 하며 “재외동포들의 복수국적 확대 ‘등 동포사회의 주요관심사’에 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28일 폐막했다.

세계 30여개국에서 60여명의 주요 해외 언론사 대표와 국내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이번 대회는 개막식에 앞서 김용운 교수의 ‘풍수화(風水火)-원형사관으로 본 한민족의 신바람 정신과 동북아 외교 갈등의 해법’에 대한 특강이 있었고 개막식에는 김은구 회장의 환영사에 이어 신경식 대한민국헌정회 회장, 황호택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장, 심윤조 새누리당 의원, 조규형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대회사 및 축사를 했다.

재외동포언론인들은 이날 고양 국제문화도시포럼에 참석하고 꽃박람회 현장취재 후 제주특별자치도로 이동했다.

제 14회 재외동포 언론인대회 성료 30여국 60여명 참석 전국순회 행사



2015 재외동포언론인대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제주 세미나에서는 ‘재외동포 복수국적법 범위 확대’를 주제로 한 패널 토론회와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 지사와 김한욱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의 특강에 이어 재외언론사업 다각화 논의, 정기총회, 이사회 등을 열고 제주도 관광자원을 직접 둘러보는 시간도 가졌다. 제주세미나에서는 재외동포들의 위상과 역할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동포언론인들의 책임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전면적인 복수국적 시행이 어렵다면 현행 65세 이상으로 된 허용연령을 왕성한 사회활동으로 모국에 기여할 수 있는 연령대인 45세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한국정치권의 전향적인 자세를 주문했다.

27일에는 경상남도를 방문하여 최구식 정무부시장의 도정 브리핑을 듣고 두산중공업 등 산업 시찰, 28일엔 김동진 통영시장 등과의 간담회도 가졌다.

35개국 100여개 회원사로 네트워크를 구축한 재외동포언론인협회는 2002년부터 매년 모국에서 대회를 개최해오고 있다. [4]

고령자의 건강 리포트 ③

육체운동이 사람을 똑똑하게 만든다

육체적인 운동이 사람을 똑똑하게 만든다는 연구결과가 속속 발표되어 관심을 끈다. ‘사이언티픽 아메리칸’ 온라인 판은 최근 10여 편의 연구 논문을 인용, 육체적 운동이 우리 몸을 튼튼하게 하는 것 못지않게 뇌기능을



이광영

- 분회 논설위원
- 전 한국일보 편집위원
- 한국 골든에이지 포럼 상임이사

활성화한다는 내용을 다루었다. 우리 몸이 사용하면 좋아지고 사용하지 않으면 나빠진다(Use it or lose it)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는 주로 육체적인 건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운동이 정신건강 나아가서 인지기능을 유지하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것 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 최근의 연구결과라고 했다.

최근 학술지 ‘신경학’ (Neurology)도 육체적인 활동을 계속하면 나이가 들어도 뇌의 손상을 막아 준다는 미국 러시 대학 의학센터(Rush University Medical Center) 플라이슈만(Debra Fleischman) 교수의 연구결과를 게재했다. 플라이슈만 교수는 고령의 연구대상자 중 운동을 많이 한 사람 일수록 뇌의 손상이 있어도 활동검사(movement test)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했다. 그는 운동에 영향을 주는 체중, 우울증, 혈액순환 등 여러 조건을 감안하여 다시 분석해 보아도 차이가 없었다고 했다. 플라이슈만 교수는 이번 연구결과를 볼 때 매일 정

기적인 운동을 하면 나이가 들어 생기는 뇌손상이 있어도 그 나이 수준의 육체적인 활동 기능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한 전문가는 이번 연구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면서 정기적인 운동으로 알츠하이머 치매를 비롯한 모든 치매의 진행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또 나이가 들어 발생하는 뇌손상의 경우에도 즐겁게 몸 상태에 맞는 육체적 활동을 지속하면 육체적 활동능력을 유지하여 일상적 활동을 가능케 해 준다는 설명이다.

또한 최근 미국 볼티모어에서 열린 미국심장협회 연례학술대회에서 미국 보스턴 의과대학 스파르타노(Nicole Spartano) 연구원은 40대에 충분한 운동을 하여 몸이 단련된 사람은 20년 후에도 뇌의 부피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인지능력 검사에서도 몸 단련을 잘 하지 못한 사람에 비해 더 좋은 성적을 유지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스파르타노 연구원은 1,270명의 남녀를 대상으로 20년을 추적 관찰한 결과 40대에서 충분한 운동을 하지 않은 사람은 충분한 운동을 한 사람보다 빠른 뇌의 노화를 의미하는 뇌의 부피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신입회우 환영합니다



김승한(金丞漢) 1937년 9월 23일생
주소 : 인천 광역시 중구 인종로 109 풍림아파트 101동 1812호
전화 : 010-6537-6006
<약력>
KBS 아나운서실장, 전주방송 총국장, 불교텔레비전 방송위원



백승대(白承大) 1944년 3월 29일생
주소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181길 10(정발산동)
전화 : 031-913-6153, 010-5253-9854
<약력>
KBS 보도국 기자(75-92), 남북 고위급 6차회담 동행 취재, TOP프로덕션 대표(현)



선정은(宣廷垠) 1944년 4월 29일생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8 광장아파트 8-1201
전화 : 010-9117-8294
<약력>
KBS 라디오편성부장, 라디오편성국 기획부장, 방송심의실 심의위원



심갑섭(沈甲燮) 1942년 1월 9일생
주소 : 인천시 연수구 해송로 30번길 20 401동 1001호(송도 웰카운티)
전화 : 010-4514-1119
<약력>
KBS편성실장, 광주방송국장, 대구방송총국장, 대경대학 학장,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승현(曹昇鉉) 1954년 8월 26일생
주소 : 인천 연수구 동춘동 현대아파트 116-103
전화 : 010-7603-7727
<약력>
내외경제 편집국기자, 인천일보사 사회부기자 사회부 차장, 사회부장, 경기일보 사회부장 대우, 중부일보사 국장대우 편집위원

따뜻한마음

2014 인터넷윤리대전 인쇄광고부문 SK커뮤니케이션즈 사장상 수상작품

© 유진우



이름다운 인터넷의 시작은
따뜻한 마음으로부터-

서로가 보이지 않는 인터넷 공간이지만,
사람과 사람이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곳입니다.
작은 댓글 하나도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된다면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이 만들어 질 것입니다.

溫故知新

懲毖錄의 교훈을 되새기자

KBS 1TV의 주말 사극 ‘징비록(懲毖錄)’이 인기를 끌며 방영되고 있다. 요즘 임진왜란 직후 상황이 나오고 있다. 올해는 임진왜란이 일어난 지 423년째가 되는 해이다. 임진왜란 때 나라를 구할 수 있었던 것은 안에서는 유성룡(柳成龍), 밖에서는 이순신(李舜臣)이 자기 한 몸을 버리고 사력을 다해 싸웠기 때문이다. 두 사람이 목숨을 걸고 나라를 구한 것은 선조(宣祖)가 훌륭한 임금이었어서가 아니었다. 오로지 나라의 멸망을 막고 백성을 참상에서 구하기 위해서였다. 두 사람이 없었다면 나라는 그때 망해 일본의 식민지가 됐을 것이다.

장수들과 의병들이 왜적을 무찌르는 동안 선조가 한 일이라고는 적어 보이기도 전에 서울을 버리고 달아난 것과 유능한 대신과 장수들을 잠재적 정적으로 여겨 죽이려 들었던 것밖에 없었다. 그러고는 난이 끝나자 나라를 구한 것은 오직 명나라의 공로라고 했다. 선조는 이처럼 엽기적인 국왕이었다.

선조 25년(1592) 음력 4월 13일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20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리던 조선왕조는 졸지에 망국의 위기를 맞았다. 이때 유성룡은 조정에서 영의정과 도체찰사로 국가의 보존을 위해 비상한 리더십을 발휘했다. 밖에서는 유성룡이 천거한 이순신이 수군통제사로 제해권을 장악해 망국의 위기에서 나라를 구했다.

유성룡은 그동안 쌓여온 악폐를 해소하기 위해 면천법(免賤法)과 호포법(戶布法)을 실시하고 속오군(束伍軍)을 설치했다. 면천법은 노비들이 군공을 세우면 노비에서 해방시

켜 베풀어 주는 법이고 호포법은 양반들에게도 군포를 걷는 법, 속오군은 양반 사대부들에게도 병역의 의무를 지게 하는 법이다. 또한 작미법(作米法)도 추진했다. 이는 뒷날 대동법(大同法)이라고 불린 혁신적인 세제였다. 쉽게 말해 농토가 많은 양반은 그만큼 세금을 더 내는 법이었다.

그러자 그동안 쓸모없는 글재주나 농하고 헛된 논쟁이나 일삼다가 나라를 거덜 낸 양반 벼슬아치들이 기득권을 지키겠다고 격렬히 반발했다. 그들은 나라야 망하든 말든 자기네 이익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다. 그러나 온갖 비난과 반대를 무릅쓴 유성룡의 혁신적 조치는 백성들의 마음을 돌리게 만들어 마침내 조선은 망국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전쟁의 원흉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왜군들이 물러가기 시작하자 선조는 기다렸다는 듯이 유성룡을 내쳤다. 유성룡의 탄핵 사유는 종계변무(宗系辨誣)를 위한 명나라 사신행



황원갑

·본회 회우
·전 서울경제 문화부장
·소설가
·역사 연구가

자원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종계변무란 '태조(이성계)가 고려 말의 권신 이인임의 아들로 고려말기 네 왕을 시해했다'고 잘못 기록된 명나라 '대명회전(大明會典)'의 내용을 고쳐달라는 요청이었다. 이는 태조 3년(1394년)부터 시작된 사안으로 유성룡의 탄핵 사유가 아니었다. 설득력이 약하자 서인과 북인 반대파에서는 유성룡이 왜와 강화를 주장했다는 혐의를 뒤집어씌웠다. 그러나 유성룡은 7년간의 전쟁 내내 강화를 주장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이는 결국 유성룡이 전시에 집행한 각종 개혁입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양반 사대부들의 음모와 이에 동조한 영악한 국왕 선조가 합작한 결과였다. 왕위 계승의 정통성에 콤플렉스가 있던 선조는 신하들이 백성의 칭송을 받는 것을 병적으로 싫어했다. 그런 신하는 정적으로 간주했다.

늙고 병들고 지친 유성룡은 그저 쉬고만 싶었다. 선조 31년(1598년) 11월 19일 파직당한 유성룡은 이튿날

서울을 떠나 고향 하회마을로 향했다. 그런데 청백리였던 유성룡은 여비가 없었다. 길 떠난 지 이틀도 안 돼 노자가 떨어져 하인을 고향집으로 보내 양식을 구해오도록 시켰다.

선조 34년(1601년) 12월 선조가 다시 벼슬을 주고 불렀지만 가지 않았고 이듬해 청백리에 선정됐다고 했지만 마다했다. 또 그 이듬해에는 부원군에 복귀시켰으나 상소를 올려 사면을 요청했으며 호성공신으로 책봉했으나 공신록에서 이름을 지워달라고 상소했다. 선조 37년(1604년) 63세가 된 유성룡은 저술해오던 '징비록'을 완성했다.

선조 40년(1607년) 병이 깊어진 유성룡은 "이제 편안하고 조용히 조화(造化)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고 그해 5월 6일 세상을 뜨니 향년 66세였다. 이듬해 2월 선조도 죽었다. 저승에서 유성룡과 그보다 먼저 간 이순신을 만난 선조는 차마 얼굴을 들지 못했을 것이다.

유성룡의 사후 개혁입법은 모두 폐기되고 나라가 다시 양반들의 세상이 되자 백성들은 낙담했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30년 후에 일어난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때 백성들이 아무도 나라를 위해 일어나지 않은 것이 모두 그런 까닭이었다. 그래서 민심이 천심이라는 것이다.

지금 나라 안팎의 정세를 보면 임진왜란 전이나 별반 다를게 없다. 호전적인 북괴의 도발은 끊임 줄 모른다. 그럼에도 여야 간의 정쟁은 그칠 줄 모른다. 역사의 교훈을 무시하거나 망각해서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회우들이 펴낸 신간

정진석 명예회우 ‘항일민족언론인 양기탁’

정진석(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 본회 명예회우가 최근 ‘항일민족언론인 양기탁’ (1871~1938)을 펴냈다. 서재필 기념회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양기탁을 ‘올해의 민족 언론인’으로 선정하고 지난 4월 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얼굴 부조 동판 헌정식을 여는 것을 계기로 이 책을 펴낸 것이다.

정진석 교수는 이 책 서문에서 “양기탁 선생은 용기와 지조를 지닌 언론인이면서 독립투사였으며 항일투쟁으로 일관한 일생을 살았던 분이자 항일 최대의 민족지 ‘대한매일신보’의 총무로 신문을 통한 항일운동에 진력하는 한편으로 국채보상운동과 항일 비밀결사 신민회를 이끈 핵



심인물”이었고 “한말 언론인 가운데 일본어 영어 한문까지 능통했던 당시로서는 드문 국제화된 인재였으며 당시 최대의 민족지인 ‘대한매일신보’를 통해 항일운동에 진력해 ‘민족언론인’이란 수식어가 부끄럽지 않은 인물”이라고 평했다.

양기탁의 생애, 그의 항일 민족 투쟁사와 활동무대, 양기탁 투옥과 탄압과정에서의 재판 기록, 외국언론이 본 양기탁 등 독립투쟁으로 일관했던 과란만장한 우국의 일생이 많은 고증과 함께 소상하게 기술돼 있다.

(도서출판 기파랑 발행·국판 340 쪽·값 22,000원)

정구종 회우 ‘일본지식인 23인과의 대화’

정구종 회우(전 동아일보 편집국장·현 동서대학교 석좌교수 겸 일본연구센터소장)가 ‘일본지식인 23인과의 대화—한일교류 2천년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를 펴내고 지난 4월 14일 오후 6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이 책에는 일본인사 23명의 인터뷰가 실려 있다.

필자는 일본의 사회, 언론, 문화계 인사들의 제언과 추천을 바탕으로 23명의 대상자를 선정하여 인터뷰하고 취재하여 이 책을 집필했다.

이 책에서는 한일 양국 상호교류가 쌓아온 문화적 유산이 오늘날 일본 사회에서 어떠한 양태로 존재하는지, 역사 속 교류의 산물이 일본인의 삶과 의식 속에 어떻게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피고 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교



류의 역사가 이어져 내려오는, 일본화한 문화의 현장을 탐방, 양국 문화의 재창조를 실천하고 지켜 내려온 일본의 문화계 인사와 대표적 유식자(有識者)들과 묻고 답한, 이른바 산증언(oral history)을 모은 기록이다.

제1부 ‘한일교류 2천년, 과거로부터의

메시지’, 제2부 ‘한일 문화유산의 오늘’, 제3부 ‘소설·연극·스포츠, 교류에서 공유의 시대로’, 제4부 ‘한류10년과 한일정서의 재발견’, 제5부 ‘과거사 극복으로 한일의 밝은 미래’, 제6부 ‘우리들은 아시아 시민’으로 나누어 관련 인사들의 인터뷰를 소개하였으며 22장으로 구성된 각장마다 인터뷰의 배경과 취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해설을 붙여놓았다.

주영관 원로회우 별세

주영관 원로회우가 지난 4월 5일 별세, 7일 오전 7시 20분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했다. 향년 87세.

1928년 10월 20일 서울서 출생한 고인은 경북고와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1956년 합동통신 사 기자를 시작으로 외신부장 특신부장



출판국부국장을 거쳐 서울신문 논설위원 등을 역임했다. 제9대 국회의원(유정회)을 지내기도 한 고인은 다시 언론계로 복귀, KBS 해설주간 자문위원, 서울신문 주필 편집담당 이사 논설고문, 세계일보 논설고문, 서울언론재단 이사직을 맡기도 했다.

주영관 주필 영전에

신우식(본회 고문)

오래전에 위암 수술을 하시고 식사가 불편하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이 100세 시대에 이렇게 일찍 세상을 떠나실 줄은 몰랐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슬프기 그지 없습니다.

서울 사대문 안에서 태어나신 주 주필은 경북고등학교와 서울대 문리대 사회학과를 졸업하셨습니다(1957년). 6·25 전쟁 중에는 육군통역장교로서 대위 예편을 하실만큼 나라를 위해서도 헌신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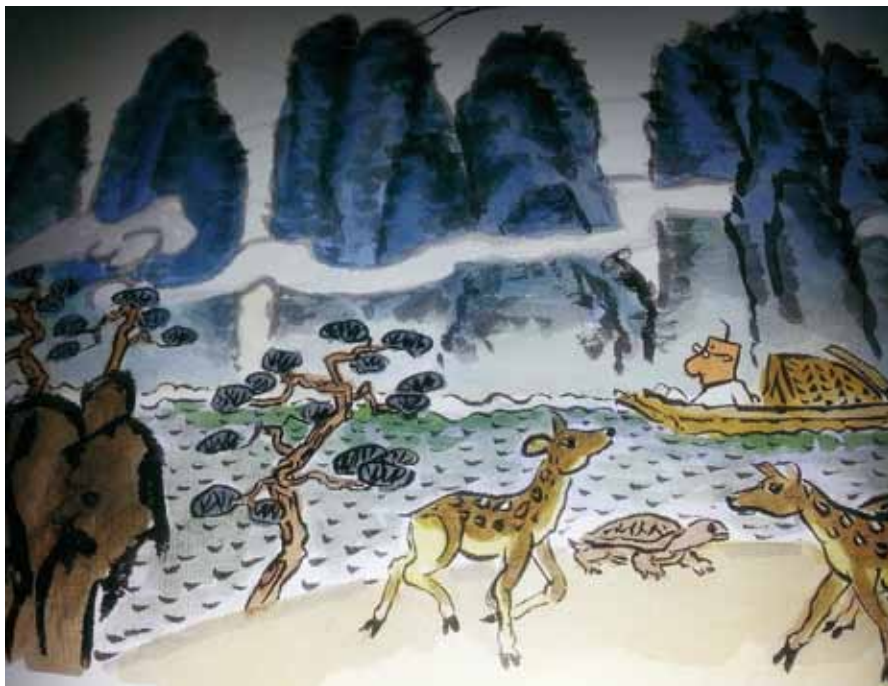
언론계와의 인연은 지금은 없어진 합동통신 기자로 맺기 시작하여 외신부장, 특신부장, 출판국 부국장을 지내고 1967년 1월~73년 3월 서울신문 논설위원을 역임하셨습니다.

1973년 3월부터 79년 3월까지 제9대 국회에 진출하시기도 하셨습니다. 1979년 9월부터 80년 7월까지 한국방송공사(KBS) 해설주간을 맡으셨습니다. 또한 1980년 7월 서울신문 주필(이사)이 되셨고 1982년 편집제작담당이사가 되셨습니다. 그때가 서울신문·프레스센터

신축을 위한 서울신문의 을지로5가 임시사옥 시절이었습니다. 이 무렵 서울 중부경찰서 앞 일식집에서 제주도 특산 다금바리 회를 편집제작분야 국장들이 함께 맛보던 즐거운 기억이 납니다. 이때 하신 말씀 중에 “서울 사대문 안에 타지 사람들이 쳐들어와 서울 본토박이는 발붙일 곳이 없다”고 한탄 겸 낮두리하시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위낙 술자리에서는 재미있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육군통역장교 시절의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손톱 밑의 때, 발톱 밑의 때를 영어로 통역할 줄 몰라 고생했다”고.

그 뒤에도 주 주필의 언론계와의 인연은 이어졌습니다. 서울신문 논설고문(1984~86년), 서울언론재단 이사(1983~86년), KBS 자문위원(1987년), 세계일보 논설고문(1989~94년)을 역임하셨습니다.

답론을 즐기시고 인정 많으시고 후덕하신 주 주필님이 그림습니다. 삼가 명복을 빕니다.



김성환 회우 ‘고바우 十長生圖展’

5월 27일부터 인사동 가나 인사아트센터

대한언론인회보에 만평을 연재중인 김성환 회우가 오는 5월 27일부터 6월 2일까지 종로구 인사동 가나 인사아트센터에서 ‘고바우 십장생도전’을 갖는다.

‘고바우영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로 등록된 것을 기념하여 열리는

이번 십장생도(十長生圖)전시회는 동양 화풍으로 고바우영감과 함께 해, 구름, 산, 물, 돌, 소나무, 불로초, 학, 사슴, 거북이 등장한다.(사진)

예술가들의 작품이 문화재로 등록된 작가는 김성환 회우 외에도 노수현, 이상범, 김환기, 김용환 등 7명이 있다.

윤병찬 회우 별세

윤병찬 회우가 4월 28일 별세했다.

향년 76세.

고인은 1939년 3월 25일 서울 태생으로 동국대 경제학과를 나와 1965년 KBS에 입사해서 33년간 방송기자 생활을 했다.

고 윤병찬 회우는 KBS 춘천, 속초, 부산, 제주방송국 등 지역방송기자를



거쳤고 본사 보도국 전국부 라디오편집부 라디오정보센터 부장으로 정년퇴직한 후 아리랑TV 비상임고문을 지내기도 했다.

대한언론인회는 4월 29일 오후4시 많은 회우들이 참석한 가운데 빈소인 여의도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추도식을 거행,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윤병찬 형 영전에

李輝(전 KBS 여맥회장)

따사한 봄날, 尹형의 相別을 알리는 訃音은 갑자기 落木寒天에 삭풍을 맞는 누런 풀 같은 아픔이었소!

평소 건강하시고 厚德하시었으며 넉넉하게 선후배동료기자들과 언론동지들을 맞이하시고 챙기시던 尹형의 인품과 자상하심이 이제는 한낱 追憶의 里程標 속의 달리는 과거 역사의 열차가 되었다니 허전하고 허무하며 애통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인생의 푸른 꿈을 방송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지난 64년 동국대 경제학과를 졸업하시고 바로 KBS에 입사하신 후 춘천에서, 속초에서, 인천에서, 부산에서 멀리 제주까지 전국의 주요처를 두루 涉曆하시고 라디오 정보센터부장으로 아리랑TV 고문으로 평생을 방송계에 헌신하신 윤형이 아니셨습니까.

그러던 형이 이렇게 홀연히 떠나시니 嗚呼痛哉라 허무할 따름입니다.

尹형과 같이 뛰며 취재했던 꽃피고 낙엽 지는 남산길이 새롭고 여의도 광장에 구르는 돌맹이도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生氣死歸 一夢間에/牽情何必 淚潸潸이라만/世間最有 斷腸處하니/草綠江南



조사를 낭독하는 이휘 회우.

人未還이라

사람이 나고 죽는 것이 한 개 꿈속이니 정에 이끌려 어찌 굳이 눈물을 흘리랴마는 세간에 가장 애끓는바 있으니 그것은 강남에 새로 풀은 푸르러도 한번간 가버린 사람은 돌아오지 못함이라.

여의도 서편으로 해는 지고 春色은 멀기만 한데 어디 가서 윤형을 만날지니.

윤형! 이제 世俗의 人間七情 생로병사 모두 잊으시오. 가볍게 홀승 승천영생하세요. 가시는 길에 주막이라도 만나시면 좋아하시던 天酒라도 한잔 하시고 두고가시는 어부인과 자녀들의 건강과 행복을 빌어주세요.

嗚呼哀哉라!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그러나 이들 작가들은 모두 작고한 후 문화재로 등록됐으며, 김회우만이 살아있는 작가로는 유일하게 문화재로 등록되었다. 모두 61점이 전시되는 이번 십장생도 전시회는 김회우의 13번째 작품전이다.

김회우는 50년 동안 만화를 그려 만화만 그리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김회우는 다른 작가가 도저히 모방할 수 없는 자신만의 독특한 화법을

가지고 있는 놀라운 화가다. 김회우는 한 폭의 그림에다 고바우영감을 등장시키고, 중국의 고사나 격언, 혹은 한시를 자신만의 독특한 전서체로 곁들인 독특한 기법을 구사한다.

그의 그림영역은 모든 장르를 망라할 정도로 폭이 넓다. 풍경화, 인물화, 꽃과 곤충을 그린 초충도(草蟲圖), 민화(民畵)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 바로잡습니다 ◀

▲ 4월호 1면 남시욱 회우의 “從北세력의 ‘남조선 혁명’ 막아라” 제하의 기고문 중 ‘역대 정부·국회의원들이 김기종 지원’ 소제목 기사의 끝부분 ‘見微以知朋見端以知末’에서 ‘朋’은 ‘萌’의 잘못이기에 바로잡습니다.

▲ 4월호 5면 홍정기 문화일보 논설위원 기고문 “從北에 司法관용 베풀지 말라” 제하의 기고문 중 ‘大法서 바로잡은 회문산 빨치산 추모 전야제 사건’ 소제목 기사 두 번째 문장의 ‘전남 순창 회문산에서...’에서 ‘전남’은 ‘전북’의 잘못이기에 바로잡습니다.

회우동정

가나다순

역도산 추모 특별프로그램 출연



고두현(전 서울신문 국장급 기자)회우 = 최근 재일동포 프로레슬러 역도산(한국명 김신락) 사망 51주기를 맞아 중편 JTBC 특별프로에 출연해 역도산이 일본에서 유명해진 사연과 성공비화를 소개.

한국아나운서클럽 감사연임



김상준(전 KBS 아나운서실장)회우= 3월 4일 한국아나운서클럽 2015정기총회에서 감사로 연임.

제5회 '이철주 문학상' 수상



김후란(문학의 집 서울 이사장·대한민국 예술원회원)본회 자문역= 4월 18일 오후 5시 '문학의 집 서울'(산림박물관 중앙홀)에서 한국문인협회 주관으로 열린 이철주 문학상 시상식에서 제5회 이철주 문학상(수상작 '비밀의 숲')을 받았다. 이철주 문학상은 항일 민족시인 이철주(1908~2001)시인을 기리기 위해 한국문인협회가 제정한 상이다

제5회 개인전



문준철(전 내외경제 편집국장)원로회우= 4월 1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80-2 미센주빌딩 풀시티 갤러리에서 제5회 개인전을 가졌다. 문회우는 세계서법문화예술중심 초대작가로 현재 한국미술협회 회원 겸 종로 미술협회위원으로 활약 중이다.

현정회 홍보편찬위원장



박관흠(전 대구일보 사장)회우= 지난 4월 3일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 현정회 홍보편찬위원장에 위촉됐다.

서울 현충원에서 추사



손주환(전 문공부장관·전서울신문사장)회우= 최초의 월남파병부대인 비둘기부대가 첫 전투에서 승전한 때로부터 50주년이 되는 날(4월 2일)을 기념해 서울 현충원에 모인 역전의 용사들에게 첫 종군취재를 했던 당시를 회고 하고 "비둘기부대의 승리로 파월의 자신감을 얻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맹호 청룡부대가 파병될 수 있었다"는 요지의 추사를 했다.

서재필언론문화상 시상



안병훈(서재필 기념사업회 이사장·기파랑 대표)회우= 4월 9일 오후 4시 프레스센터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병호)과 공동으로 외신전문프리랜서 사진기자로 활약 중인 정은지씨(45)에게 제5회 서재필언론문화상을 시상했다. 안 회우는 또 4월 18일 오후 5시부터 서울 종로구 대학로 샘터빌딩 야외 테라스(5층)에서 도서출판 기파랑 창립 10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40~80년대 영화 450편 필름 기증받아



이병훈(한국영상자료원 원장)본회 이사= 4월 7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3월, 1970년대 서울 종로에서 순회 영상사업을 했던 한규호 연합영화공사 대표로부터 실체를 확인할 수 없었던 한국 극영화 94편을 포함, 총 450편의 필름을 기증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이 회우는 4월 23일 19시 한국영상자료원 시네마테크에서 이만희 감독 40주기를 맞아 이 감독의 영화 세계를 살펴보는 상영전과 기획전시회를 가졌다.

현정회 대변인으로



이원창(전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회우= 지난 4월 3일 전직국회의원모임인 현정회 대변인으로 위촉됐다.

초동문학 초록향기에 시 발표



이학주(시인·전 한국경제 편집부장)원로회우= 지난 4월 1일 초동문학예술협회가 발행한 시집 '초록향기'에 자작시 10편을 발표했다. 이 원로회우는 월간 한백문학, 한울문학 신인상을 수상하고 현재 한국문인협회 회원으로 활동중이다.

창녕조씨 대종회장 취임



조강환(전 동아일보 논설위원)회우= 지난 4월 25일 경북 경주시 안강읍 노당리 창녕조씨 대전당인 종덕재에서 전국 시도 총회 운영위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종회에서 제34대 대종회장 겸 종덕재장에 선출됐다. 조회우는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다. 전국적으로 창녕조씨 종원은 38만여명에 이른다.

동아 워싱턴특파원과 대담



진철수(관훈클럽 초대총무·전 동아일보 편집부장)원로회우= 지난 2월 27일 오전 11시 30분(현지시간) 워싱턴 내셔널프레스 빌딩' 13층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신석호 동아일보 워싱턴 특파원과 '미국언론의 덕목' 등 여러 관심사에 관해 인터뷰했다. 대담내용은 관훈클럽 홈페이지에 전문이 실려있다.

첫 방송터 기념행사 열어



한영섭(한국방송인동우회 회장)원로위원회 위원장= 4월 25일 첫 방송터 기념행사를 덕수초등학교 교정 유희비 앞에서 가졌다. 이 첫 방송터는 88년 전 우리나라에서 방송전파가 처음 발사된 곳으로 6·25때 소실된 중앙방송국 정동연주소 자리에서 해마다 기념행사를 갖는다.

회우가족동정

조부 건국훈장 전수 받아



허금자 여사(고바우 김성한 화백 부인)는 4월 17일 수원보훈지청으로부터 조부 허승환 애국지사의 건국훈장 애국장 및 독립유공자증을 전수받았다. 허승환 애국지사는 1910년 신흥무관학교를 나온 뒤 고려혁명군 특전대장으로 활동했다.

홍수연씨 초대전

서양화가 홍수연씨(홍원기 명예회장 장녀) 초대전이 4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2개월간 서울 강남구 논현동소재 로알갤러리(전화:02-514-1248)에서 열린다. 이 초대전에는 최근작 30여점이 출품된다. 홍씨는 홍익대 서양학과와 동 대학원 서양학과 및 미국 프렛(Pratt Institute)대학원을 졸업한 뒤 뉴욕에서 10여년간 작품활동을 해왔다.

주소 변경

박순신 회우= 서울 강남구 선릉로 69길 19 역삼래미안 아파트 101동 1905호
안종화 회우= 서울 성북구 솔샘로 18길 76-3 (우)136-850
임응식 회우= 서울 강동구 고덕동 고덕로 19길 8-11 암사파크빌 302호 (우)134-855
장두원 회우= 경기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883의 1 죽전 아이뷰 아파트 104동 403호
홍승국 회우= 서울 서초구 잠원동 한신10차아파트 316동 108호 (우)137-907

입회비 · 연회비 내주신 분 감사합니다

농협 056-01-105628 대한언론인회
(괄호 안 숫자는 납입연도, 2015년 3월 31일 부터 4월 30일까지)

김승한(입회비)
김응환(14)
김진걸(15)
박관흠(14,15,16)
박기정(14,15)
박범진(15)

백승대(입회비, 연회비)
선정은(입회비, 연회비)
심갑섭(입회비)
정창기(15)

조덕일(15)
조승현(입회비)

주종환(15)
최종철(15)

협찬금 : 문명호 주필 30만원

회우경조사

결혼

김응환 회우= 4월 25일(일) 12시 10분 메뉴 지 (VENUE G) 1층 내추럴 홀서 장남 결혼
인보길 부회장= 5월 9일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안동교회에서 3녀 결혼

부음

이흥기 회우= 4월 10일 모친상 (서울 이대 목동병원 장례식장 12호실)

月刊 大韓言論

· 발행인 겸 편집인 김銀九
· 상임이사 겸 사무총장 鄭雲宗
· 주필 文明浩
· 편집위원장 成樂五
· 대외협력국장 黃貴根
· 발행처 (우)100-745 서울중구 태평로1가 25 프레스센터 1405호
등록번호 서울 라 12013
· E-mail : kjc1405@hanmail.net
· 홈페이지 www.kjclub.or.kr
· ☎ 02)732-4797/4798
02)2001-7621
· Fax. 02)730-1270

새롭고 기술, 부산
문화로 융성하는

두근두근 희망 부산

부산이
날다

88개의 정책공약 하나하나가
부산에 큰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킵니다.
시민 누구나 마음껏 꿈꾸고
그 희망을 현실로 이루어 가는 도시!
행복한 오늘을 누리고, 설렘 가득한 미래를 기대하는 도시!
두근두근 희망찬 부산의 내일이 더 기대됩니다.

“88개의 공약사업으로
부산이 새롭게 날아오릅니다!”

양질의 일자리, 부산만의 특화된 일자리를 많이 많이 만들겠습니다!

TNT 2030플랜 실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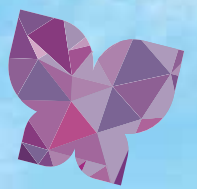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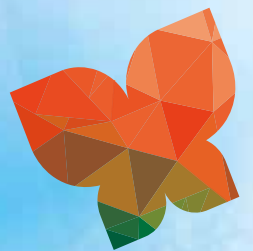
인재육성과 기술혁신을 통해
부산이 세계적 창조혁신도시로
도약할 틀을 만듭니다.

대학 산학연 연구단지 조성

대학에 산·학·연 혁신역량을
모아 부산의 미래를 바꿀
신산업을 만들어 냅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

부산을 유통, 영화·영상, IoT
중심의 창조적 혁신거점도시로
육성합니다.



전자랜드 price KING
프라이스킹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그룹 전자랜드

전자랜드는 레저스포츠 · 철강 · 농산물유통 · 농구단 · 용접재료 등
국내 · 외 8개 계열사를 가진 글로벌 기업입니다



전자랜드 엘리펀츠

인천지역을 기반으로 지난 시즌
4강진출 프로농구단



트윈도브스

베트남 호치민에 위치한
동남아 최고의 골프장



지산 포레스트 리조트

최고의 시설의 스키장
리조트, 골프장 등을 갖춘 휴양시설



서울청과(주)

서울 가락시장에 위치한
국내 대표 농산물 유통도매시장법인



고려제강

전세계 70여개국으로 수출하고있는
세계 최고 경쟁력의 특수 선재 기업

SYS홀딩스(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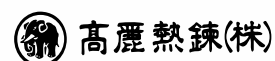
SYS홀딩스(주)

서울 용산에 위치한
최대 규모 전자상가 운영 기업



고려용접봉

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용접재료 생산 일류 기업



고려열연(주)

고주파 유도 가열방식의 신기술을
갖춘 PC강봉 제품의 선두기업